metro
메트로 2014년 2월 3일 월요일 www.metroseoul.co.kr

Sports p/22

2연패 홍명보 "내탓이오"

美 주지사까지 협박하는 일본

동해병기 법안 통과 막으려 버지니아 주지사에 편지
대형로펌 동원 로비도…정부, 日역사왜곡 강공 선회

'역사를 반성하지 않는 민족은 결국 멸망한다.'

인류 역사가 주는 엄중한 교훈도 모르는 듯 일본 정부가 역사왜곡 움직임을 갈수록 노골화하고 있다.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의 동해병기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주미 일본대사관이 직접 '마피아식' 협박에 조직적 로비까지 벌이는가 하면 일본 보수 언론들은 프랑스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관련 전시회를 일제히 맹비난하고 나서 국제사회의 빈축을 사고 있다.

이에 맞서 우리 정부는 국제 공조를 통해 전쟁을 뉘우치지 않는 아베 정권의 역사 인식을 부각시키는 강공 전략으로 역사의 무서운 교훈을 일본 스스로 뼈저리게 느끼게 할 계획이다.

◆동해 병기 막으려 대형 로펌 계약

2일 미국 법무부의 외국로비공개법(FARA)에 의해 공개된 주미 일본대사관과 워싱턴 대형 로펌인 맥과이어우즈 컨설팅 간 석 달간 7만5000달러(약 8000만원)의 용역계약서 문건을 통해 그동안 설로만 무성하던 주미 일본대사관의 동해병기법 저지 로비의 실체가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19일 주미 일본대사관의 미즈코시 히데아키 공사와 맥과이어우즈 부사장이 서명한 이 문건에는 버지니아주 의회에 상정된 동해병기법안 통과를 막기 위한 대응 방향과 저인망식 로비 전략의 전모가 상세히 담겨있다. 특히 지난해 12월 당시 당선인 신분이었던 테리 매콜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를 집중 로비 대상으로 삼은 사실도 드러났다.

실제로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는 지난해 12월 26일 매컬리프 주지사에게 위협성 서한을 보내고 지난달 22일에는 직접 면담도 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도 왜곡된 역사 인식을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달 31일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과거사에 관해 역대 내각의 인식을 계승한다는 뜻을 밝히면서 의도적으로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인정한 부분을 제외하고 발언했다. 이는 일본이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은 하지 않았다는 인식을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분석된다.

설연휴 마지막 날 해운대… 오늘부터 다시 추워요 설연휴 마지막 날인 2일 부산지역 낮 기온이 15도까지 올라가는 등 포근한 날씨를 보이자 해운대 해수욕장을 찾은 나들이객들이 바다에 뛰어들어 찬 겨울을 추억하기도 하고 있다. 하지만 4일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가는 등 3일부터 다시 강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다. /연합뉴스

역사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일본 보수 언론들도 마찬가지다.

1일 산케이신문은 '2014 프랑스 앙굴렘국제만화페스티벌'에 일본군 위안부의 피해 실상을 알리는 만화는 전시되고 이에 맞선 일본 측 만화가 철거당한 것에 대해 "문화 행사여야 하는데 주최 측이 한국을 우대하는 정치색을 반영한 것이 됐다"고 맹비난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모미이 가쓰토 NHK 신임 회장이 "전쟁을 했던 어떤 나라에도 위안부는 있었다"는 망언을 해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기도 했다.

◆'역사 프레임' 전략으로 맞서

그동안 적극적인 대응을 자제하던 우리 정부도 일본의 역사 인식 전체를 문제 삼는 '역사 프레임' 전략으로 맞대응하기로 했다.

지난달 30일 제1차세계대전 100주년을 맞아 '전쟁의 교훈과 영구 평화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유엔 안보리 공개토론에서 오준 유엔 주재 대사는 일본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교과서 왜곡, 군 위안부 강제 동원 부정 등 일본의 잘못된 역사 인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또 이달 중엔 외교부가 만든 독도 동영상 영어판을 공개하고 중국 등 일제 피해국들과 함께 '일본 제국주의 침략 만행사'에 대한 국제 공동 연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 외교 문제 전문가는 "평화를 들먹이면서 군사대국화를 꿈꾸고 관계 개선을 얘기하면서 주변국을 자극하는 일본에 반성만 요구하는 건 더 이상 무리"라며 "국제사회와 공조를 통해 실질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강구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국명기자 kmlee@metroseoul.co.kr

내일 입춘 봄의 길목에 들어선다는 입춘을 하루 앞둔 2일 오후 경기도 용인 한국민속촌 양반가 솟을대문에 민속촌 머슴들이 '입춘대길'과 '건양다경'이라는 입춘방을 붙이고 있다. /연합뉴스

6·4 지방선거 내일 예비후보 등록 시작…새누리·민주·安신당 대결

'3자 구도 레이스' 스타트

6·4 지방선거를 120일 앞둔 4일부터 광역시·도 단체장과 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예비 후보자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22일~6월 3일)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정치 신인'에게도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해주기 위해 2004년에 도입됐다.

새누리당은 홍문종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위원회를 발족한 데 이어 이달 말 공직후보자추천위원회를 구성, 4월 말까지 공천 심사를 완료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양승조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선거기획단을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4월께 후보자 공천을 마무리한다는 복안을 세웠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이끄는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 역시 3월까지 신당 창당을 서두르고, 기존 정당의 후보 확정 일정을 고려해 공천 작업을 마무리한다.

이번 지방선거는 2012년 총선 이후 2년 만에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이자 박근혜 정부에 대한 중간 평가 성격을 띠고 있어 여야 모두 사활을 건 총력전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새정추가 17개 광역시·도 단체장 선거에 모두 후보를 내겠다고 공언하면서 1998년 제2기 지방선거 이후 16년 만에 '3자 구도'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수도권에서의 승패가 전반적 평가를 좌우할 것으로 보여 서울·경기·인천 등 3 광역단체장 선거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시·도지사와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고, 현역 단체장과 교육감은 직은 유지하되 등록 시점부터 선거일까지 부단체장·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한다. 다음달 21일부터는 광역·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 선거 예비 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

/[illegible]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한국서 실종 日공무원 변사체로

일본 기타큐슈 앞바다서

업무차 한국에 왔다가 행방불명된 일본 내각부 소속 공무원이 일본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 앞바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됐다.

1일(현지시간) 교도통신 등은 기타큐슈에 있는 제7관구 해상보안본부 발표를 인용, 지난달 20일 인근 바다에서 남자 시신 1구를 인양했으며 그 신원이 30세 내각부 직원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부터 2년 기한으로 미국 미네소타대학에서 유학 중이던 내각부 직원으로 확인됐다. 그는 지난달 한국에서 열린 경제 관련 회의 참석차 미국에서 서울로 입국한 뒤 연락이 끊겼다.

수사 관계자는 시신에 눈에 띄는 외상이 없으며, 이 남성이 한국에 입국했지만 출국한 기록은 없고 일본에 귀국한 기록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이 남성이 모종의 사건에 휘말렸거나 자살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illegible]기자

安신당 "창당때 시·도당 최소 7곳 발족"

'3월 창당'을 선언한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이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을 위한 발기인 규모를 300명 안팎으로 잡고 명단 작성 작업을 진행 중이다.

안 의원 측은 2일 "법적 요건인 200명을 크게 넘기지 않고 빨리 하자고 해서 창준위 결성 일정을 앞당긴 만큼 300명 안팎이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새정추)는 각 시·도 조직에서 상징적 인물을 평균 10명가량 선정하고 서울에서 나머지 인원을 선정해 중앙당 창준위 발기인을 구성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정추는 3월 말 창당까지 17개 시·도당을 모두 발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준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최소 7곳을 먼저 발족하고 정식 창당 이후 나머지 시·도당을 순차적으로 창당한다는 방침이다.

/[illegible]기자

기름띠 앞에 한복 대신 방제복 2일 전남 여수시 신덕마을에서 시청과 해경 직원, 군인, 주민 등이 해상에 떠밀려온 기름띠를 제거하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오전 여수시 낙포각 원유2부두에서 발생한 기름 유출 사고로 인근 신덕마을이 기름 피해를 입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개회…'5대 쟁점' 충돌

2월 임시국회가 3일 본격 가동된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 기초연금 수령,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검찰 개혁, 국가정보원 개혁 등의 민감한 현안이 줄줄이 대기 중이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이어서 주요 입법 쟁점을 놓고 여야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곳곳에서 정면 충돌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관련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정조사에서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개인정보를 유출·활용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한 반면, 민주당은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기초연금 도입과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문제도 이번 임시국회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새누리당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노인 70%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과 연동해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차등 지급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원안대로 모든 노인에게 20만원씩 지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검찰과 국정원 개혁방안 처리에 대해서는 큰 틀의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각론을 둘러싼 이견은 여전히 팽팽하다.

/[illegible]기자

해산하는 부실 사립대, 장학재단 등 전환 가능

부실한 사립대학 법인이 해산해도 장학재단·요양원·직업교육기관·평생교육기관 등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교육부 관계자는 2일 "해산하는 사립대학 법인의 잔여 재산을 학교법인이 아닌 다른 곳에 출연할 수 있는 내용을 '대학 구조개혁 및 평가에 관한 법률'에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해산 과정에서 부채 등을 갚고 남은 잔여 재산은 다른 학교법인에 넘기거나 국고로 귀속하게 돼 있어 학교 설립자가 대학 운영이 어려워도 대학 문 닫는 것을 꺼려왔다.

잔여 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곳으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익법인, '사회복지사업법'의 사회복지법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의 직업교육훈련기관, '평생교육법'의 평생교육기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교육부는 아울러 법인 기본 재산에 일정 기준 이상 출연 또는 기증한 설립자가 생계가 곤란하면 일정 정도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illegible]기자

새끼줄에 매단 새해 소원 2일 오전 서울 퇴계로 남산골 한옥마을을 찾은 한 가족이 소원지를 적어 새끼줄에 걸고 있다 /뉴시스

참기 힘든 '빛공해' 오늘부터 배상

사회 통념상 참아야 하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어선 빛공해로 생활에 방해가 돼 분쟁이 벌어졌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배상기준이 3일부터 시행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빛공해 수인한도는 빛으로 인한 시각적 불쾌감을 나타내는 '불쾌글레어 지수'로 판단하는데, 기준 지수는 36이다

또 수인한도 초과 정도에 따라 배상금이 달라진다

행정처분 현황, 조명기구 특성, 시간대 등 빛공해 피해 특성 등 9개 항목도 배상금 산정에 반영된다

면휘도계 등 장비를 갖춘 대학 부설 연구소 등에서 측정한 결과 등 근거자료를 첨부해 중앙 또는 지방 환경분쟁조정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피해가 인정되면 측정비용을 포함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윤다혜기자

에너지음료·캔커피 94% 학교매점 퇴출

카페인이 많이 함유된 음료의 학교 매점 판매가 금지된 가운데 시중에서 판매되는 에너지음료와 캔커피 93.9%가 퇴출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문제연구소컨슈머리서치가 2일 롯데칠성, 코카콜라, 해태음료, 동원F&B, 동서식품, 웅진식품 등 16개사가 판매하는 23개 에너지음료와 10개 캔커피 음료의 카페인 함량을 조사한 결과 93.9%인 31개가 고카페인 음료로 분류됐다고 밝혔다

에너지음료 23개 제품의 ㎖당 카페인 함량 평균은 0.37㎎으로 고카페인으로 규정하는 0.15㎎보다 2배 이상 높았다

캔커피 10개 제품 전체는 퇴출 대상으로 ㎖당 평균 0.46㎎의 카페인 함량을 보였다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면 과태료 10만원, 광고 규정을 위반하면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다혜기자

경희사이버대 발전기금 모금

경희사이버대학교 일본학과가 2일 설립 10주년을 맞아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세무회계학과에 이어 일본학과 재학생 동문 등이 모금 활동을 펼쳐 총 274만원을 기부했다. 기부금은 학교와 학과의 공동 발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오늘의 역사 Today in History

그림 박상철

호찌민 베트남 공산당 결성

베트남 공산당의 아버지 호찌민이 1930년 2월 3일 홍콩에서 베트남 공산당을 결성했다. 이로써 베트남 지역에서 따로 활동하던 3개 공산당이 하나로 통합되어 홍콩에 있는 공산당 중앙위원회의 독재하에 들어간 것이다. 젊은 시절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지를 떠돌다 프랑스로부터 베트남 독립에 헌신했던 호찌민은 평생 권력을 쥐었을 적이 없었고 치산을 무상하던 일도 없었다. 그는 평생 동안 조국과 더불어 독신으로 살았고 죽었을 때 남긴 것은 옷 한 벌과 슬리퍼 한 켤레뿐인 청렴한 사람이었다

방역 한숨 – "조상님 죄송합니다" 설날인 지난달 31일 경기도 수원시 오목천동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직원들이 차례를 지내고 있다. 지난달 27일부터 직원들은 조류인플루엔자(AI) 차단 방역을 위해 귀향을 포기하고 원내 생활을 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제공

AI 설연휴엔 '주춤'…철새도 쉬었나

이번 조류인플루엔자(AI) 사태의 최대 고비였던 설 연휴가 마무리되면서 방역 당국이 한숨을 돌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설 연휴 내내 전국 고속도로 나들목에 U자형 소독시설 250개를 설치하고 주요 터미널 304곳과 기차역 220곳, 공공기관 1260곳에 발판소독조 2637개를 설치해 민족 대이동에 따른 AI 확산을 예방하는 데 주력했다. 또 주요 철새 도래지 37곳 주변에 77개 통제 초소를 설치해 사람과 차량의 통행을 통제했다

연휴 이틀째까지 추가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오지 않아 AI의 기세가 한풀 꺾이는 듯했지만 연휴 사흘째인 1일 부산과 충북 진천에서 감염의심 신고가 들어온 데 이어 2일에도 충북 음성의 씨오리 농장과 전북 정읍의 토종닭 농장에서 AI 감염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다만 AI의 잠복기가 7~21일인 점을 고려할 때 1~2일 AI 감염의심 증상이 나타난 농장은 설 연휴 전 이미 AI에 오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보고 있다. 또 지난달 부산에서 발견된 조류 폐사체 검사 결과 잇따라 음성으로 판정됐다

권재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2일 "오늘까지 AI에 오염된 것으로 확인된 농장은 총 37곳이며 예방적 살처분 농장을 포함해 106개 농가의 닭·오리 250만3000마리를 살처분했다"며 "아직 안심할 수는 없지만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통해 AI가 전국으로 확산할 개연성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민준기자 mjk@

성평등기금 12일까지 접수

서울시 관악구가 여성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12일까지 '2014년 성평등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여성 권익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관악구 소재 비영리법인·단체, 여성 관련 기관이면 신청 가능하고 결과는 3월에 발표된다

지원 규모는 2000만원으로 1개 사업당 400만원 이내로 지원한다

신발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사업 추진

부산시는 전통 주력 산업의 구조 고도화 프로젝트의 하나로 '신발산업 글로벌 기반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달 3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목표는 고기능성 과학적 검증·신뢰 확보를 통한 부산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다.

시는 우선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인 신발산업의 세계적 명품화 (2014~2018년 사업비 2145억원)에 주력할 계획이다.

신발산업 세계적 명품화 전략은 ▲핵심원천 부품소재 개발 기술혁신 지원(450억원) ▲신발 성능 표준 및 인증체계 구축(100억원)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3곳 건립(1240억원) ▲글로벌 신발 전문인력 양성(65억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강화(160억원) 등이 핵심이다.

부산문화재단 대표이사 중심체제로 개편

부산문화재단이 정관 개정을 통해 대표이사에게 대표권과 경영 책임을 부여하는 대표이사 체제로 개편된다.

부산문화재단은 지난달 28일 2014년 제1회 이사회를 열고 남송우 대표이사를 제3대 대표이사로 연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남 대표이사는 지난 2011년 2월 제2대 대표이사로 임명된 후, 전국 12개 시·도 문화재단 대표자회를 출범시키는 등 지역 문화의 자생적 발전이라는 광역적 방향성 제시에 주력해왔다.

그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지역문화진흥법의 제정을 주도하는 등 부산 문화와 부산문화재단의 위상을 제고하는 데 앞장섰다. 특히 원만한 인품과 경험, 특유의 현장 소통력을 바탕으로 지역 문화·예술계와 폭넓게 교감하며 합리적인 업무 처리로 지역사회의 존경을 받고 있다.

부산문화재단 이사회는 또 이사장이 가진 재단의 대표권을 대표이사에게 이관하는 한편, 실질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재단 정관을 개정했다.

이번 정관 개정으로 부산문화재단은 지금까지의 이사장 중심 체제에서 대표이사 중심 체제로 전환된다.

이에 오는 7일 출범하는 제3기 부산문화재단은 보다 효율적인 체제를 기반으로 재단의 독립성과 정책의 현장감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간 대표이사가 실질적으로 재단을 운영하면서도 대내외 대표권은 비상근인 이사장이 가지는 데에 따른 불분명한 직임관계 논란이 적지 않았다. 특히 이사장인 시장에 재단의 대표권이 있다는 점에서 관 주도의 문화 행정 이미지가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부산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정관 개정을 통해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 역할에 한정되고, 대표이사가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조직 운영과 목적 사업의 집행을 독립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또 "향후 민간이사장이 선임되면 민간 현장 중심의 문화행정 체제가 더욱 공고하게 자리를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정하균기자 hk@metroseoul.co.kr

동의대 중기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 선정

동의대 인력개발처(처장 조재균)가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2014년도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동의대는 지난 2009년부터 청년취업인턴제 운영기관으로 선정돼 부산지방고용노동청와 위탁 운영을 맡아왔다.

대학은 올해도 지난해와 동일한 250명의 인원을 배정받았다. 인력개발처는 지난달 28일 부산고용센터에서 위탁 운영 협약을 체결하고, 2월 1일부터 12월까지 11개월 동안 사업을 진행한다.

이번 사업에는 대학으로는 부산지역에서 동의대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또 부산상공회의소 ㈜부산양코리아 ㈜제니엘 영남본부 등이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 고용노동부에서 시행하는 '중소기업 청년취업인턴제'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고자 청년을 신규 채용하는 중소기업 등에 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인턴 기간 동안 약정 임금의 50%(월 한도 80만원)를 지원한다. 정규직 전환 후 7개월간 고용 유지 시 6개월분의 임금 중 일부 금액(월 65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인력개발처 조재균 처장은 "올해는 각 지역의 고용센터에서 중소기업과 만남의 장을 마련하는 등 우수한 청년취업인턴제 참여 기업이 늘어나는 만큼 졸업 예정자들이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며 참여를 당부했다.

/정하균기자

안전보건공단 부산본부 위문금

안전보건공단 부산지역본부(본부장 심재동·오른쪽 셋째)는 지난달 29일 오전 해운대구 반여동에 위치한 아동복지시설 (원장 김성혁)을 방문해 생필품 및 위문금을 전달했다.

'AI 공포' 부산도 덮치나

첫 의심신고 접수·방역 비상
조류 폐사체는 줄줄이 '음성'

부산의 한 육계농가에서 집단 폐사가 발생, 조류인플루엔자(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지난달 부산에서 발견된 조류 폐사체 검사 결과 잇따라 음성으로 판정됐다.

부산시는 지난달 26일 강서구 등지에서 발견된 왜가리, 청둥오리 등 야생조류 폐사체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사 결과 AI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달 23일 발견된 물닭, 붉은부리갈매기 2마리를 비롯해 부산지역에서 수거된 총 19마리의 야생조류 폐사체 중 13마리에서 AI 음성이 나왔다.

아직 검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은 지난달 28일 오후 부산 강서구 명지동 인근 논에서 발견된 청둥오리 폐사체 6마리뿐이다.

조류 폐사체의 AI 검사 결과는 줄줄이 음성으로 나오고 있지만 방역 당국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1일 부산 강서구 한 육계농가에서 200마리의 닭이 집단 폐사해 부산에서는 처음으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된 데다 지난달 29일에는 부산에서 30여㎞ 떨어진 경남 밀양 토종닭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돼 살처분이 진행됐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의심 신고가 접수된 농가 주변 300m 이내에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이 농가의 AI 감염 여부 등 검사 결과는 이르면 3일 오전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

부산역서 '문화가 있는 날' 부산문화재단 소속 비보이팀이 지난달 29일 오후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문화가 있는 날' 행사에 참여해 공연을 하고 있다. 부산시는 이날을 시작으로 매주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지정, 시내 곳곳에서 다양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다. /연합뉴스

'춘절 특수' 中 관광객 잡아라

부산시 1만5000명 방문 전망 · 관광종합상황반 등 운영

부산에 중국의 '춘절' 관광객 특수가 일 전망이다.

부산시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춘절 연휴에 한국을 방문할 중국인 관광객 3만여 명 중 1만5000여 명이 부산을 찾을 것으로 보고 이들을 맞을 준비를 마무리했다.

이들 중국인 관광객 중 1만여 명은 김해공항과 국제 크루즈를 이용해 부산을 직접 방문하고 5000여 명은 서울·제주도를 거쳐 부산에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구·군과 유관 기관,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협회 등과 관광종합상황반을 운영하는 한편 관광 불편사항 개선 및 관광 수용 태세를 점검하고 관광객 환영 행사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부산시와 구·군은 종합상황반을 운영하고 춘절 연휴 마지막 날인 6일까지 국제크루즈터미널, 쇼핑센터, 음식점, 호텔 등 주요 관광지를 대상으로 관광안내판, 음식메뉴판, 관광시설물, 종사원의 친절, 청결, 숙박시설 요금표, 택시 부당요금 및 골목 등 불법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 연휴 동안 부산을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은 위해 부산관광공사와 공동으로 환영 행사를 준비했다. 1일에는 김해공항 국제선 입국장에서 관광객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포토존 설치, 은련카드 프로모션 행사 등 다양한 이벤트를 펼쳤다.

또 영도 크루즈국제터미널에서는 우리의 전통 공연과 색소폰 연주, 꽃다발 증정 등 환영·환송 행사를 펼치고 관광안내소·환전소·기념품판매소 운영 및 부산 지도와 안내 책자를 제공하는 등 관광객들이 편안하게 부산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서면, 광복동, 광안리, 해운대 일원을 방문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쇼핑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편의시설 등을 수시로 점검키로 했다. /뉴시스

금정구 지역 행복도 1위

금정구가 부산지역에서 가장 행복한 지역으로 조사됐다.

2일 금정구에 따르면 서울대 행정대학원 서베이조사연구센터가 지난해 전국의 성인 2만1050명을 대상으로 행복도를 조사한 결과 금정구가 전국 230개 지자체 중 15위, 부산 지자체 중 1위를 차지했다.

이번 조사에서 전국 230개 기초 지자체의 행복도 평균은 3.6741점으로 나타난 가운데 금정구의 행복도는 3.84점(5점 만점)을 기록했다.

더 쾌적한 도시철도 만들자

부산교통공사 4대 고객불만 없애기 본격 돌입
탈취제 설치·잡상인 단속·시트 교체 등 실시

부산도시철도가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바뀐다.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4대 고객불만을 정하고 본격적인 개선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공사는 전동차 내 불쾌한 냄새 제거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는다.

먼저 1호선에는 바이오탈취제 분무장치를 3개 편성(24량)에 6개월간 시범 운영한다. 3호선 2개 편성(8량)에는 2개월간 친환경 천연 방향제(재스민·로즈메리)가 설치된다.

탈취제와 방향제는 시범 설치 기간 동안 고객 의견을 검토해 전 전동차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각 노선 종착역에서 운행 대기하는 모든 전동차는 좌·우측 출입문을 모두 개방해 주기적으로 환기시켜 역사 내 명산안내기 등 보유 매체를 통한 냄새 발생 예방 홍보도 병행한다.

공사는 수년간 고객의 이용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잡상인, 구걸인 등에 대한 대대적인 전방위 단속에 들어갔다.

먼저 2월부터 2개월간 본사 간부 100명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1~2호선을 10개 구간으로 나눠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1호선 중앙역·범내골역·서면역 등 잡상인들이 대기하는 장소에는 상시적으로 직원을 배치해 잡상인의 이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전동차 내 시트 교체도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공사는 지난해 3만8473개(1호선 1만9554개, 2호선 1만5293개, 3호선 3625개)의 좌석 시트 교체에 이어 올해에는 좌석 등받이 시트를 순차적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공사는 역사 내 화장실 환경 개선에도 적극 나선다.

화장실 내 쓰레기 발생 및 불편을 야기했던 통합 비치 화장지를 오는 3월까지 108개 역 449개 화장실 1283개 칸에 개별 비치한다. 범죄 예방과 교통약자 보호를 위한 여자 화장실 입구 폐쇄회로(CCTV) 설치도 현재 37개 역에서 올해 30개 역을 추가해 내년까지 전 역사에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특히 공사는 전동차 내 불쾌한 냄새, 잡상인, 훼손된 객실 시트 등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3700여 명의 직원과 각종 용역직원들을 통한 감시의 눈을 넓혀 고객 불만에 앞서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부산교통공사 박태수 사장은 "도시철도 이용 중 불편한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 어디서든지 의견을 제시해주시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부산도시철도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춰 더욱 편리하고 쾌적하게 만들기 위해 전 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jhk@metroseoul.co.kr

지역 공예명장을 찾습니다

24일부터 후보자 접수

부산시가 공예인의 자긍심 고취와 전통공예 산업 발전을 위해 '부산광역시 공예명장'을 선정키로 하고 오는 24일부터 28일까지 후보자를 접수받는다.

시는 목칠·도자·섬유 등 공예 분야에서 총 2명 이내로 공예명장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민속공예 산업 분야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접수일 현재 부산시에 10년 이상 거주한 공예인 중 최고의 공예 기술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 공예 산업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대한민국 명장과 부산광역시 지정 무형문화재에 지정된 경력이 없어야 한다.

공예명장 선정은 신청자의 공예기술 보유 정도 및 입상 실적, 공예 산업 발전 기여도, 지휘향상 기여도, 산업화 노력 등을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를 통해 평가한 후 3차 공예명장심사위원회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6월 중 선정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단 부산 공예명장의 품격과 위상 제고를 위해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정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산시는 공예명장에게 공예품 개발 장려금 1000만원(연 5백만원씩 2년간) 지원과 인증서 및 인증패 수여, 부산시 공영주차장 요금 감감 등의 혜택을 부여할 방침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공예명장 선정을 통해 오랜 기간 열악한 여건에서도 전통공예 산업을 묵묵히 지켜온 공예인의 위상을 높이고, 시민들에게 전통공예품의 의미와 가치를 재인식시켜 지역 공예 산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하균기자

시민공원 내달 임시개장

부산시는 도심의 새로운 허파 역할을 할 부산진구 조흥동 부산시민공원(옛 미 하야리아 부대)을 5월 조정식 개장에 앞서 각종 시설물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을 위해 3월 임시 개장한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부진한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일부 공사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현재 87.3%의 공정률에 그치고 있는 부전천 정비 작업을 이달 10일 완료하는 것을 비롯해 공원 도로 포장(공정률 94%)은 이달 20일, 에코브리지 설치(공정률 93%)는 이달 25일, 잔디광장 등 조경(97%)은 이달 28일, 접근도로 개설(85.5%)은 3월 20일까지 완료하고, 3월 말쯤 공원 전체를 임시로 개장할 방침이다.

시는 또 카페 3곳 등 판매시설(면의점 2곳은 직영) 계약, 문화 예술존 12개 등 입주작가 선정과 대관 절차, 참여의 정원 시민꽃밭 공모도 임시개장 전 모두 완료하기로 했다.

시는 임시 개장을 통해 시설 또는 프로그램 운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시민공원 사공자문단회의를 열어 공원 시설물 명칭과 시설 운영 등 추진상황을 점검한 데 이어 2월 중 시민공원위원회를 개최해 시민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개장식 전후 행사 계획에 대한 조언을 받을 예정이다.

평화시장 뒤 노점 25곳 불… 1800만원 피해 지난달 19일 오전 7시 2분께 부산 부산진구 범천동 평화시장 뒤 노점의 탈의장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천막으로 된 가건물 내 식당 등 25개 노점을 모두 태워 18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시간여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진소방서 제공

터널·교량 안전시스템 강화

부산시설공단은 지역 터널과 교량 안전 시스템과 편의시설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공단은 먼저 터널 내 교통사고 예방과 시인성 증대를 위해 'LED 시선유도등'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과적 차량으로 인한 사고가 잦은 동서로의 우암고가 진입부와 문현 진입 램프에 과적 차량 진입 방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과속으로 인한 연쇄 추돌사고 우려가 높은 황령터널과 제2만덕터널에는 과속 경보(감속 유도)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광안대교의 경우 출퇴근 시 차량 정체 요인으로 지목되는 하이패스 차로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자 수영강변과 벡스코요금소 등지에 하이패스 4개 차로를 증설한다.

또 광안대로 전 구간에 영상 보안과 방송시설을 늘리고 한결의 작은 음악회와 친환경 생태체험교실 등 에코그린존 문화행사 개최도 검토 중이다.

/연합뉴스

서병수 의원, 박 대통령 친서 전달 새누리당 서병수(왼쪽) 의원이 지난달 27일 온두라스에서 열린 후안 오틸란도 에르난데스 신임 대통령 취임식에 박근혜 대통령 특사로 참석해 취임 축하 인사 및 한국·온두라스 양국 간 협력관계 발전을 희망하는 친서를 전달했다.

/온두라스 주재 한국대사관 제공

中 '하이브리드 쌀 대부' 노벨평화상 후보 부상

중국의 벼 육종학자 위안룽핑(84)이 올해 노벨평화상 후보로 떠오르고 있다고 홍콩 명보가 노르웨이 언론을 인용해 2일 전했다.

'하이브리드 쌀의 대부'로 불리는 위안룽핑은 13억 중국 인구의 식량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1970년대 이전 중국의 평균 쌀 생산량은 헥타르(ha)당 4.5t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의 연구로 교잡 품종인 하이브리드 쌀이 보급되면서 ha당 수확량이 7.1t으로 증가했다. /조선미기자

중·일 국제회의 정면충돌

中 "전쟁 범죄 부정하는 역사교육은 실패한 것" 비난에 日 "군비 확장 마라" 맞불

영유권 분쟁과 과거사 문제로 적약와 갈등 국면에 접어든 중국과 일본이 국제회의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교도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외사위원회 푸잉 주임은 1일(현지시간) 독일에서 열린 뮌헨 안보회의 토론회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와 관련,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역사와 전쟁 범죄의 부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유럽에는 제 2차 세계대전의 학살을 부정하려는 이들이 없다. 일본의 역사 교육은 실패한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했다.

반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일본은 평화 국가로서의 길을 걸어왔다"며 아베 정권의 안보 정책을 옹호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역사를 직시하고 제2차세계대전과 식민 지배에 대해 확실히 반성하는 마음을 표했다. 아시아는 세계에서 군비 지출이 가장 많아 늘고 있는 곳"이라고 중국의 군비 확장을 비판했다. 더불어 해양 질서를 강화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이 협조해달라며 센카쿠(중국명 다오위다오)열도를 겨냥한 중국의 해양 진출 확대를 견제했다.

한편 중국이 장병들에게 춘제(중국의 설) 경제 근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진주만 공습을 거론해 눈길을 끌었다.

2일 중국군 기관지 해방군보는 "전쟁은 일정한 법칙이 있지만 언제 어떤 방식으로 시작될지는 불확실하다"며 "일본의 진주만 기습과 나치독일의 소련 습격이 이 점을 잘 설명한다"고 전했다.

/조선미기자 seonmi@metroseoul.co.kr

태국 혼돈 속 '반쪽 총선' 2일(현지시간) 태국 방콕의 한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선 시민들이 신분증을 들어 보이고 있다. 태국은 반정부 시위대의 선거 반대와 야당의 불참으로 정국이 혼미한 가운데 이날 조기총선을 실시했다. 375개 선거구 중 42개 선거구에서 투표용지 배포 무산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AFP 연합뉴스

발바닥, 발가락 통증?
더 이상 참지마세요!

발바닥에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하거나,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하게 전기통하는 느낌이 든다면 지간신경종(몰톤씨신경염)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아무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발바닥이 아프기 시작하는 지간신경종은 처음에는 발가락이 절려지는 부분인 발바닥의 앞쪽에 무언가 이물질을 한 겹 붙여놓은 것처럼 느낌이 둔감하거나 마치 모래를 밟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감각이 이상하기도 한다. 가만히 있을 때에도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리고 심하면 통증마저 느껴진다고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병원에서 엑스선을 찍어보고 허리가 문제인가 싶어 허리 MRI도 촬영하고, 혈관문제인가 싶어 혈관조영술을 해봐도 별다른 문제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러다보니 증상은 점점 심해지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 것은 물론 걷는 것마저 힘들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된다.

현대인의 발은 끊임없이 혹사당하고 있다

발은 신체의 모든 뼈 중 5분의 1이 몰려 있고 평생토록 지구의 4바퀴 반에 해당하는 거리를 움직인다. 최근 발바닥의 통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통증은 곧 질병의 신호. 발의 작은 통증 하나가 일상생활을 못할 정도의 고통을 주기도 하나.

예쁜 발=작은발' 이라는 통념이 아직도 남아있다. 특히 여성들은 발이 크면 미련해 보일까봐 발이 작고 날씬해 보이는 신발을 선호하는데 이런 신발을 애용하는 여성들은 발의 앞부분인 중족골과 발가락 신경에 생기는 지간신경종을 주의해야 한다.

지간신경종은 발가락의 감각을 담당하는 신경이 과도한 압력을 받거나 발가락 사이에서 눌려 붓는 질환을 말한다. 굽이 높은 구두를 신는 여성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굽이 높은 구두를 신으면 발가락 신경과 주변 조직이 과도한 자극이 가해져서 몸무게 전체의 압박을 받기 때문이다. 발바닥의 앞쪽 부위가 저리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는 증상으로 중년 여성 분들에게 흔히 발견된다. 가끔 발바닥 통증을 허리 쪽의 이상 때문인 것으로 오인해 병원으로 오는 환자도 적지 않다.

이제 멀리 가지 않더라도 부산에서도 무지외반증과 지간신경종 등의 발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

부산에서도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치료해

부산에서 지간신경종 무지외반증 등 족부관련질환을 전담하여 케어하는 족부클리닉을 운영중인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몸을 지탱하는 받침대인 발은 26개의 뼈와 33개의 관절로 이루어져 오묘하게 움직이지만 어느 한 곳만 이상이 생겨도 보행에 필요한 균형을 잃고 연쇄적인 통증을 일으키게 된다"며 "발가락은 한 번 변형되면 다른 발가락을 변형시키고 무릎, 허리 관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변형과 통증이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손과 발은 비슷하게 생겼지만 손가락의 움직임이 중요한 손과 달리 발은 체중을 부하하여 걷는 기관이기 때문에 보행을 편하게 하는데 중점을 두어 치료해야 하며 발이 불편하면 보행이 틀어지므로 무릎, 엉치, 척추에도 무리가 갈 수 있다.

디스크, 하지정맥류 혈관장애 등으로 오인, 오랜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아

지간신경종은 매우 다양한 감각 이상을 호소한다.

보통 가만히 있을 때는 거의 증상이 없다가 걷거나 딱딱한 바닥에 닿으면 발바닥 앞쪽이 화끈거린다. 특히 발가락과 발가락으로 연결되는 뼈 사이의 신경 부위에서 가장 많이 느낄 수가 있다. 이 부위는 발바닥중에서 체중의 압력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이다.

마치 껌이 붙은 것처럼 먹먹한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며 발을 잘못 딛는 경우 발가락에 찌릿한 느낌이 뻗치고 때론 발이 시리거나 뜨겁다고 호소한다. 특히 상당수가 막연히 발이 저리다고 하는데 디스크나 하지정맥류, 혈관 장애 등으로 오인받아 MRI나 혈관검사 등을 해보지만 오랜 기간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경을 잘라내지않고 절골술을 시행, 지간신경종의 원인을 제거한다

대한민국정형외과 이준호원장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후된 지간신경종 자체를 절제하지 않고, 중족골 사이에 끼어서 붓게 된 지간신경의 압박을 감소시켜주는 절골술을 시행하고 있다. 주의할 점은 간혹 시술 후 부종이나 동통, 부정유합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대한민국정형외과의원의 이준호 원장은 지간신경종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수술법을 시행하여 수술 부작용을 더 줄이고, 재발을 걱정도 덜어준다. 그러면서 수술은 부위마취로 이루어지며 의료보험이 적용되므로 환자부담도 덜었다.

대한민국 정형외과 이준호 원장은 오랜 경험과 수술 노하우를 바탕으로 손질환과 발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의 효과적인 치료와 빠른 회복을 위해 수부클리닉과 족부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어 고운손과 편안한발을 위한 치료노력에 매진하고 있다

퇴색한 금빛 찾아줄 인도·중국

최대 금 수요국 수입제한 완화 전망…춘절 호재도

금융가 사람들

■IBK투자증권 윤영교 연구원

한때 반짝반짝 잘나가던 금이 다시 전성기의 영광을 되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IBK투자증권 투자전략팀 윤영교(사진) 연구원은 지난달 28일 메트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난해 금융시장이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시점에 대한 이슈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는데, 금 가격이 원자재 가운데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윤 연구원은 "지난해 금값 급락의 원인으로 투기 수요 급감을 꼽을 수 있다"면서 "벤 버냉키 의장이 테이퍼링 가능성을 저유으로 제기한 이후 테이퍼링 시작 시점을 두고 격론이 오가면서 시장 불확실성은 극대화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그는 "만일 금이 확고한 '안전 자산'이라는 신뢰가 있었다면 이 시기에 가격은 상승하거나 유지됐을 것"이라며 "그러나 금 가격은 원자재 중 가장 큰 가격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올해 금값 상승세가 예상되는 가운데 금값 상승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요인으로 '수급'을 꼽았다.

그는 "금은 공급이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수요의 움직임에 따라 가격 등락이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실제로 최근 가격 상승을 이끈 것은 중국 등 이머징 국가 리스크와 함께 세계 최대 금 수요국인 인도의 수요 증가 전망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도 정부가 금 수입 제한 조치를 완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며 "지난해 하반기 들어 무역수지 적자폭이 빠르게 감소해 더 이상 인도인의 금 사랑을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약해졌기 때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도와 더불어 중국의 춘절 호재도 금 수요를 자극할 수 있는 요인 중 하나다.

윤 연구원은 "중국인들이 춘제 쇼핑 기간에 구매하는 제품 중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것은 금을 비롯한 귀금속"이라며 "대표적 사치품인 귀금속 소비 증가는 향후 가격 방향에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지기자 m118@metroseoul.co.kr

market index <3일>

코스피	코스닥
1941.15 (+24.22)	515.21 (+5.91)

금리	환율
2.82 (+0.01)	1072.00 (-6.00)

IC칩 없는 현금카드 못쓴다

이번주부터 집적회로(IC)칩이 없는 마그네틱(MS)현금카드를 이용한 현금 인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금융감독원은 카드 위·변조 사고 방지를 위해 MS카드를 IC카드로 전환하는 작업에 따라 이처럼 바뀐다고 지난 1일 밝혔다.

MS카드(신용+체크)를 통한 카드대출 및 신용구매 거래는 내년 1월부터 제한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처 전환하지 못한 소비자는 영업점에서 무료로 교체 발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롯데카드 설연휴에도 재발급·해지 업무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백화점 카드센터에서 카드 재발급 및 해지를 위해 방문한 손님들이 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최근 1억여 건의 고객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에 대해 3개월 영업정지를 내릴 예정이다. /연합뉴스

KB·NH·롯데카드 3개월간 영업정지

최근 고객 개인정보 유출로 문제를 일으킨 KB국민카드와 롯데카드, NH농협카드가 이르면 오는 14일부터 3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3일 KB국민·롯데·NH농협카드에 1억여 건의 고객정보 유출과 관련해 '3개월 영업정지' 결정을 공식 전달한다.

금융 당국은 통지 후 10일간 제재심의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4일 또는 늦어도 17일부터 영업정지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이들 카드사의 신규 가입과 대출 업무가 전면 금지된다. 카드론과 현금서비스와 같은 신규 대출도 정지된다. 그러나 카드 재발급이나 카드 결제 등 기존 고객 서비스는 전과 같이 이용이 가능하다.

/이진석기자 mirus@

1등 당첨번호						2등보너스숫자
6	17	27	13	40	44	24

등위	당첨방법	당첨금(원)
1등	6개 숫자 일치	1,341,948,353
2등	5개 숫자 + 2등 보너스 숫자	48,236,379
3등	5개 숫자 일치	1,347,238
4등	4개 숫자 일치	50,000
5등	3개 숫자 일치	5,000

metro 메트로신문사
서울시 중구 신문로 2가 1-141 142
TEL 02)721-9800 FAX 02)730-1661
발행인 겸 편집인 남궁호
사업 총괄 김병학
편집국장 조인호
부산지사장 직대 김영훈
서울광고문의 02)721-9851-3
부산광고문의 051)759-2100
독자센터 02)721-9881

신학기 가방 사세요 2일 이마트 용산점에서 어린이 모델이 신학기 가방을 선보이고 있다. 이마트는 오는 3월 5일까지 전국 점포에서 학생용 가방 100여 종을 최대 50% 싼 가격으로 판매한다. /연합뉴스

차 팔고 SK하이닉스 샀다

1월 코스피 개별 종목 주가, 실적·외국인 수급 따라 희비

국내 상장사들의 실적 흐름과 외국인 수급이 대체로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 시즌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증권사들이 개별 종목의 목표 주가를 대거 조정한 가운데 올 들어 외국인 투자자도 기업 실적에 따라 개별 종목을 많이 사들이거나 팔아치웠다.

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외국인은 1월 한 달간 유가증권시장에서 1조6510억원 순매도했다.

자동차 업종의 주요 종목에 대한 매도세가 거셌다.

현대차를 2725억원어치 팔아치웠고 기아차와 현대모비스도 각각 2463억원, 2152억원 순매도했다.

최근 증권사 4곳 이상이 올해 자동차 업종의 실적 둔화 우려에 현대차와 기아차의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점을 고려하면, 외국인 수급과 증권가 목표가 산정이 일치했다.

반면 지난해 말부터 증권사 9곳 이상이 목표가를 올려 잡은 SK하이닉스는 1월 외국인 순매수 1위(2501억원)를 기록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면서 올 들어 주가가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우는 등 강세를 보였다.

한편 증권사의 호평에도 불구, 외국인 '팔자'가 두드러지면서 주가가 뒤처진 종목도 일부 있었다.

GS홈쇼핑은 4분기 실적 발표 직후에 증권사 7곳 이상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했으나 주가는 급락했다.

실적 발표 직후인 지난 28일 GS홈쇼핑 주가는 외국인 매도세가 몰리면서 장중 9% 넘게 빠졌다가 전 거래일보다 2만원(약 7%) 이상 하락한 수준에서 종가를 형성했다.

한 증권사 연구원은 "향후 1년 정도의 기간을 전망하고 목표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목표가와 주가 향방은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4분기 실적 시즌이 끝물에 도달하면서 증권가에서는 SK하이닉스는 물론 외국인이 많이 팔아치운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자동차 업종도 나란히 유망 종목으로 꼽았다.

신한금융투자는 SK하이닉스에 대해 "D램 수요가 많아 안정적인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올해 영업이익도 4조1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우리투자증권, 삼성증권 등은 기아차와 현대모비스에 대해 ▲주가 하락을 야기한 4분기 실적 발표가 끝나면서 가격 매력 부각 ▲해외 시장 수요 증가 가능성 등을 호재로 꼽았다.

/김현정기자 hjkim@metroseoul.co.kr

창업 힘든 한국…뉴질랜드의 30배 비용 필요

우리나라 창업 절차 및 시간은 뉴질랜드 등 창업 선도국에 비해 여전히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 부담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세계은행의 기업환경평가보고서(Doing Business 2014)를 분석해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창업 여건 순위는 전체 189개국 중 34위로 나타났다.

국가별 순위는 뉴질랜드, 캐나다, 싱가포르, 호주, 홍콩이 1~5위 순이었다.

창업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서울의 경우 약 340만원으로 뉴욕(미국)의 4배, 오클랜드(뉴질랜드)의 30배에 달한다. 특히 창업비용의 경우 중국보다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송주용기자 [illegible]

모델하우스=감성하우스

분양 정보 전달 목적 넘어 최근 문화행사장 변신중

과거 분양 관련 정보 전달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졌던 모델하우스가 최근 들어 각종 강좌나 음악회, 패션쇼, 사진전시회 등이 개최되는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건설사별 설계 및 시공력 등이 상향 평준화됨에 따라 상품의 스펙이 아닌 문화·감성을 내세워 고객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계산이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두산중공업은 서울 서울숲 인근에서 '트리마제' 분양을 앞두고 분양홍보관 'D라운지'에서 고객들을 위한 라이프 스타일링 클래스를 선보였다.

아트·뷰티, 와인, 패션, 데커레이션&플라워 등을 주제로 강좌를 운영하며 홍보관을 방문하는 고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한다.

대우건설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분양 중인 '역삼 푸르지오 시티'의 견본주택과 주택문화관 '푸르지오 밸리'에서 비즈니스를 위한 콘퍼런스 공간과 문화이벤트 공간 '씨어터 갤러리(Oz클럽)'을 마련했다. 견본주택 관람은 물론 전시회 및 문화강좌를 고객들에게 제공한다.

건설사 브랜드 홈페이지를 통한 문화이벤트도 활발하다.

GS건설 아파트 브랜드 '자이(Xi)'는 지난달 홈페이지를 통해 입주민과 입주 예정자를 위해 창간된 잡지 '가가자이(佳家Xi)' 독자선물 이벤트를 열었다. 잡지 독자, 홈페이지 회원 등이 관람하고 싶은 전시회명과 신청 이유를 작성하면 추첨을 통해 무료 관람권을 증정하는 형태로 운영됐다.

대림산업은 'e편한세상' 입주민들을 위한 '오렌지 데이' 문화이벤트를 상시로 운영한다. 입주민이면 누구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 각종 연극과 뮤지컬 등 문화 공연을 무료로 제공한다.

/박선옥기자 [illegible]

마의 일주일…세계 시총 2053조원 증발

최근 세계 증시에서 불과 일주일 새 한국 국내총생산(GDP)의 1.7배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증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헨티나 금융위기 우려 등 신흥국 시장에 촉발된 불안심리가 글로벌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세계 증시 시총은 지난달 31일 현재 60조1500억 달러로 같은 달 22일에 비해 1조9150억 달러(약 2053조원, 3.1%) 감소했다.

이는 2012년 세계은행 집계 기준으로 한국 GDP(1조1295억 달러)의 약 1.7배에 달하는 규모다.

한국 증시 시총(1조1346억 달러, 지난달 31일 현재) 대비로도 약 1.7배에 이른다.

세계 증시는 지난해 말부터 선진국 중심으로 강세장을 나타내며 지난 1일에는 시총 62조1280억 달러까지 불어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사상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다 지난 23일(현지시간)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11.7% 폭락하고 미국이 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양적완화 추가 축소를 결정하면서 뒤엎다.

이 기간 신흥국 주가를 나타내는 MSCI 신흥국 지수는 4.1% 하락했고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국 주가를 보여주는 MSCI 브릭스 지수는 4.9% 떨어졌다.

선진국 역시 약세로 돌아섰다.

MSCI 선진국 지수는 3.8% 하락했고 미국 주요 지수인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와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도 각각 4.1%, 3.4% 떨어졌다. 유럽 증시도 4% 넘는 낙폭을 보였다. /김현정기자

한겨울에 나온 '성주 꿀참외' 2일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모델이 참외 대표 산지로 유명한 경북 성주에서 수확한 억류형(?) 과일인 성주 꿀참외를 선보이고 있다. 롯데마트는 서울역점과 잠실점 등 40개 점포에서 100g당 1000원에 판매한다. /연합뉴스

늘지 않는 시간제 일자리 기업 61% "정부압력 체감"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인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크게 확산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들은 정부 차원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부담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회장 이희범)가 전국 354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일·가정 양립 관련 기업의견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현장 전반에서 시간선택제를 '이미 채용했거나 채용 예정' 또는 '채용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기업은 17.5%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조사 기업의 44.6%가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의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정책 추진에 대해 61.7%의 기업이 '유·무형의 압력을 느낀다'(29.3%), '강압적이진 않으나 눈치가 보인다'(32.4%)고 답했다.

기업은 시간선택제 일자리와 관련, 최근 논의되는 각종 법적 규제에 큰 부담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 ▲전일제 전환 청구권 ▲기간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일제와 동일한 복지 제공 ▲전일제와 동일한 승진 기회 등의 순으로 규제 부담을 지적했다.

어느 기업 규모별로 차이를 보여 대기업의 경우 '전일제 전환청구권'을, 중소기업은 '전일제 수준의 시간당 임금 지급'을 각각 1순위로 지목했다.

경총 관계자는 "시간선택제 근로자와 기존의 전일제 숙련 근로자 간 생산성 격차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동일 수준의 높은 임금 지급이 강제될 경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 이런 부담은 중소기업에서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장세규기자 ksj@

설 연휴도 반납한 보조금 전쟁

이통 3사, 방통위 경고 아랑곳 단통법 통과 전 가입자 유치 위해 불법영업

이동통신 3사의 보조금 전쟁이 설 연휴에도 지속됐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이통 3사는 지난달 29일부터 설 대목을 틈타 '설맞이 행사' 란 특가 세일 '설맞이 선착순 휴대전화 무료' 등의 캠플릿을 걸고 불법 보조금 영업을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에는 온라인 단말기 판매점을 중심으로 이 같은 불법 보조금 영업이 강행됐다면 최근에는 설 명절을 앞세워 특별 보조금 명목으로 오프라인 판매점에서도 70만~100만 원 선의 보조금이 버젓이 지급되고 있다.

설 명절 기간에도 영업에 나선 신길동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는 설맞이 행사를 내세우며 LG전자 'G2'에 7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했다. LG G2는 출고가 99만9900원이지만 이 대리점에서는 69요금제 3개월 이용 시 할부 원가 29만5900원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 판매점의 영업직원은 선착순 10명에게만 특별히 제공되는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수원에 이 같은 캠플릿을 걸고 영업을 하고 있는 점을 미뤄 이는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인다.

신림동의 또 다른 판매점에서도 출고가 95만4800원의 삼성전자 '갤럭시S4 LTE-A'가 69요금제 3개월 이용을 조건으로 할부 원금 23만원에, 출고가 99만9000원의 팬택 '베가 시크릿노트' 역시 할부 원금 33만원에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는 약 60만~70만원대의 보조금이 지급된 셈이다. 방송통신위원회의 보조금 가이드라인이 27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30만~40만원 이상의 초과 보조금이 지급됐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27일 이통 3사에 사상 최대인 106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하지만 이통 3사는 보란 듯이 새해 벽두부터 보조금 살포를 통해 경쟁사 가입자 뺏기에 열을 올리고 심지어 100만원이 넘는 보조금을 버젓이 제공하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지난달 27일 과징금 제재 한 달 만에 이통사의 불법적인 단말기 보조금 지급 여부에 대한 실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히는 한편, 시장과열 여부도 함께 조사한다고 전했다. 특히 이번에는 이통사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조치를 미래부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공지했다.

한 통신사 대리점주는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은 경쟁사에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재영기자 ljy1403@metroseoul.co.kr

모바일T월드 국내 최초 '앱 접근성 인증' SK텔레콤은 자사 모바일 고객센터 애플리케이션 '모바일T월드'가 국내 통신업계 최초로 '앱 접근성 인증마크'를 획득했다고 2일 밝혔다. 앱 접근성 인증마크는 모든 사람들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우수 앱임을 인증하는 제도다. /SK텔레콤 제공

헬로모바일 새 요금제 출시

알뜰폰(MVNO) 업계 1위 CJ헬로비전 '헬로모바일'이 기본료 0원의 '반전할인 요금제'를 3일 출시한다.

반전할인 요금제는 하루에 5분 이하로 음성통화를 하는 고객들을 위해 출시된 상품으로, 음성통화를 150분 이상 사용 시 기본요금 1만5000원이 100% 할인되며 150분 미만으로 통화할 경우 기본료에서 1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이 요금제는 음성통화는 초당 1.8원, 문자는 건당 20원, 데이터는 1메가바이트(MB)당 51.2원이며 10MB의 데이터가 무료로 제공된다.

현재 이용 가능한 단말기는 삼성 '미니멀 폴더', '노리F2', LG '와인샤베트' 등 피처폰과 팬텍 '베가레이서', LG '옵티머스 L9' 등 스마트폰이 있다. /정지연기자

스마트폰 이젠 '국민 필수품'

10명 중 6명 TV·PC와 함께 사용 이용시간 최다

우리나라 국민 10명 가운데 6명은 TV와 컴퓨터, 스마트폰을 모두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스마트폰이 TV와 컴퓨터처럼 필수재로 자리 잡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시장조사기관인 닐슨코리안클릭이 2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만 7~69세 우리나라 국민 4274만6213명 중 58.1%인 2486만3504명이 TV와 PC, 모바일 기기를 모두 사용하고 있었다.

닐슨코리안클릭은 국내의 PC 인터넷 사용 인구와 스마트폰 사용자를 각각 3290만 명과 2680만 명으로 각각 추정했다. 스마트폰 이용자가 PC 사용자 대비 81.5% 수준으로 높아진 것이다.

이들 기기 이용 패턴도 계속 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기준 PC 인터넷 이용 시간은 하루 평균 1시간으로 2년 전에 비해 0.5시간이 줄었다.

반면 모바일 기기 이용 시간은 5.7시간으로 증가세를 보였고 TV 이용 시간은 평균 3.4시간으로 2년 전의 3.6시간과 비슷한 추세다.

/석상훈기자

명절음식 남았다면 명품야식 만들자

소스 활용 간편 요리법

기름기가 많은 명절 음식은 한 끼 이상 먹으면 질리는 경우가 많다. 명절 음식이 많이 남았지만 더 이상 먹기 싫다면, 시중에 파는 소스 등을 활용해 맛 좋은 명품 야식을 만들 수 있다.

◆만두 두부전→만두전골

온 가족이 모여 정성스럽게 빚은 만두가 많이 남았다면 시원한 만두전골을 만들어 야식이나 술안주로 내놓으면 좋다. 냄비에 물과 함께 청정원 '멸치국물내기티백' 등을 넣고 한소끔 끓인 다음 약한 불로 5분간 끓인 후 티백을 건져낸다. 소고기는 양념장으로 재워놓는다. 배춧잎은 먹기 좋은 크기로 자르고 느타리·팽이버섯은 밑동을 제거한다. 전골냄비에 썬 만두와 소고기, 배춧잎, 두부전, 팽이·느타리 등 재료를 넣고 멸치육수를 붓는다. 한소끔 끓어오르면 국간장과 소금으로 간을 맞추면 완성이다.

◆잡채→유부주머니 전골

면이 불어 먹기가 달갑지 않은 잡채는 느끼한 속을 달래줄 매콤한 유부주머니 전골로 변신시킬 수 있다. 시중에 판매하는 통유부를 준비해 뜨거운 물을 부어 기름기를 뺀다. 방망이로 밀어 눌러준 후 한쪽 끝을 가위로 잘라 잡채를 넣고 미나리로 묶어 주머니를 만든다. 황태 등으로 우리거나 조미료를 넣은 육수를 끓이고 끓기 시작하면 만들어둔 유부주머니와 미나리·파, 표고버섯 등 재료를 넣고 끓여내면 된다. 유부는 초밥용이 아닌 대림 냉동 사각유부나 동원 '고소하고 쫄깃한 유부'와 같은 냉동 통유부를 활용하면 좋다.

◆동그랑땡→미트볼 토마토 스파게티

식거나 냉동실에 넣어둔 동그랑땡과 스파게티 소스만 있다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미트볼 스파게티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다. 양파, 마늘, 홍고추, 청고추 등 재료를 썰어 준비한다. 식용유에 마늘을 볶다가 양파를 넣고 볶아준다. 여기에 동그랑땡을 넣고 볶다가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를 넣고 더 볶아준다. 물이나 우유를 자작하게 붓고 끓여준 다음, 적당히 삶은 스파게티면을 넣어 섞어주면 된다. 토마토 스파게티 소스는 청정원 '토마토 스파게티소스', 백설 '토마토 파스타소스', 오뚜기 '프레스코 토마토소스' 등이 있다. 매콤한 맛을 선호한다면 시중의 아라비아타 소스를 활용하면 된다.

◆과일→후르츠펀치

과일이 많이 남았다면 후식으로 후르츠펀치를 만들어보자. 넓은 볼에 얼음을 넣고, 크랜베리주스나 자몽주스 등 과일 주스를 붓는다. 탄산수와 사과·배 등 과일을 한 입 크기로 썰어 넣고 잘 섞는다. 오션스프레이 '스파클링 크랜베리', 롯데칠성음료 '트로피카나 스파클링' 등 탄산을 함유하고 있는 과일 주스를 활용하면 탄산수를 별도로 넣을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 새콤달콤하고 시원해 기름진 명절 음식과 찰떡궁합을 자랑한다.

/정은지기자 pesmg@metroseoul.co.kr

"설에 지친 주부 스트레스 날려요" 아이스그잭하점은 2일부터 8일까지 라빈 균 등에서 설 연휴 기간에 친정집로 뜨로가 펑인 주부와 며성을 위해 '명절증후군 퇴치 서비스'를 벌인다. /아이파크백화점 제공

뉴스 & 뉴스

신세계백화점 해외명품 대전

● 신세계백화점이 오는 13일 본점을 시작으로 사상 최대 500억원 물량의 해외 유명 브랜드 대전 행사를 벌인다.

행사는 본점이 13일부터 16일까지, 강남점 21일부터 23일까지, 부산 센텀시티점 27일부터 3월 2일까지 순차적으로 열린다.

주요 상품으로는 드라마 속 소지섭이 입고 나온 어르마니꼴레지오니,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송이 브랜드로 유명해진 전지현 가방 끌로에, 엔리베글린 등이 있다.

'초코를 사랑한 마시멜로' 출시

● 아이스크림 디저트 카페 나뚜루팝이 신제품 '초코를 사랑한 마시멜로'를 2일 출시했다.

이 제품은 초코 아이스크림과 마시멜로 아이스크림이 혼합된 미블렌더의 아이스크림에 마시멜로너겟과 초코샌드쿠키를 더해 식감을 살렸다. 부드러운 아이스크림과 바삭한 쿠키, 쫀득한 마시멜로가 조화를 이룬 달콤한 맛이 특징이다.

'인천 SK스카이뷰' 중국인 관광객 북적

SK건설은 최근 인천 남구 용현동에 분양 중인 '인천 SK스카이뷰' 견본주택에 중국인 관광객 100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견본주택을 찾은 관광객들은 아파트 모형도와 주택전시 유닛 등을 꼼꼼히 둘러보며 한국 부동산 상품과 주거 문화에 대한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 SK건설은 관광객들에게 원스톱 생활의 집약체인 인천 SK스카이뷰를 모델로 한국의 공동주택 문화를 소개했다.

이번 행사는 중국인 관광객과 여행사의 적극적인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 관광객들이 한국 부동산 시장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여행사에 요청했고, 이에 여행사가 현재 인천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분양을 진행하고 있는 SK건설에 인천 SK스카이뷰 상품 소개를 부탁했다.

인천 SK스카이뷰 견본주택을 방문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파트 모형도를 보며 상품 설명을 듣고 있다.

임동권 분양소장은 "한국의 주거 문화를 대표하는 아파트로 인천 SK스카이뷰를 소개할 수 있어 여행사의 제안에 흔쾌히 응했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 SK스카이뷰는 지하 2층, 지상 22~40층, 26개 동, 전체 3971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급 아파트다. 분양가는 기준층(5~21층) 기준 3.3㎡당 880만원 선이다.

견본주택은 인천시 남구 용현동 604-1번지(롯데마트 인하점 건너편)에 마련돼 있다. 입주는 2016년 6월 예정. 문의: 032)876-3971

/박선옥기자 psoq@metroseoul.co.kr

애교 많고 외로움 잘 타는 남자랍니다

영화 '피끓는 청춘' **이종석**

카사노바 고교생 파격적 연기변신
팬티 입고 댄스·눈곱 낀 채 촬영
더 망가질 걸 그랬나? 하하하
⋮
대세 아닌 그냥 배우가 좋아
다음엔 누아르물 찍고파

배우 이종석(25)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꿈 많은 청춘이다. 뜨고 나서 지금의 인기에 취해 어깨에 힘 좀 들어갔을 줄 알았는데 먼저 살갑게 말을 걸더니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으냐"며 다음 행보에 대한 고민부터 털어놓는다. 지난해 신드롬을 일으킨 SBS '너의 목소리가 들려'(이하 '너목들')의 순수남에서 22일 개봉한 영화 '피끓는 청춘'의 소년 카사노바 중길로 파격적인 연기 변신을 한 것 역시 이런 고민의 결과물이다.

변신 처음 '싸움짱' 앞에서는 지질하지만 여학생들 앞에서는 허세를 부리며 꾀는 데만 어설 없는 중길 역을 맡는다고 했을 때 "'너목들' 여운을 남겨두고 멋있는 역할을 하는 게 낫지 않으냐"며 반대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은 갈망이 커서 선택했다. 다행히 영화 완성 후 주변에서 "잘됐다"는 말을 많이 해줬지만 아쉬움은 남는다. 조금 더 과감히 했으면 웃겼을 것 같은데 본능적으로 몸을 사린 것 같다. 팬티 입고 춤추는 장면 촬영도 창피해서 빨리 끝냈다.

카사노바 중길의 연기 포인트는 여중길류 지질이 다. 어떻게 하면 지질해도 귀여워 보일 수 있을까를 고민했다. 물론 실제로는 중길처럼 못 했다. 작업이 연예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나. (웃음) 다만 중길처럼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건 비슷한 것 같다. 애정 표현을 즉각즉각 하는 스타일이라 스태프들이 나보고 애교가 많다고 했다. '너목들'에서 호흡을 맞춘 (이)보영 누나는 이런 게 애정결핍이라더라.

촌티 (모델 출신이지만) 이번 영화에서는 촌스러운 역할에 걸맞게 외선은 신경 쓰지 않았다. 얼굴도 못생기게 나와서 외모로 잘 보이겠다는 생각은 포기했다. 촬영하면서 거울도 안 보고 어떤 때는 눈곱 낀 채로 했다. 충청도 사투리는 처음 해봤는데 평소 말이 느려서 그런지 입에 착착 붙더라. 다만 마지막에 반전이 있으니 지켜봐달라.

첫사랑 극중 밀진 영숙(박보영)은 중길에게 첫사랑이다. 나도 중길처럼 첫사랑은 잊지 못한다. 꽤찮 시절 함께 성장했고 스무 살 넘어서까지 만났다. 똑똑하고 하얀 친구였다. 이상형은 나한테 집착해주는 여자다. 아직 애 같아서 그런 것 같다. 연애할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대세 대세라는 수식어는 지나가는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기에 감사하지만 썩 좋은 호칭만은 아니다. 요즘엔 매력 있는 20대 배우들이 많아져서 늘 나는 어떤 경쟁력을 쌓아야 할까 고민한다. 물론 나도 야망이 있다. 대세 배우로 불리지만 그냥 배우로 불리는 게 목표다. 비록 지금 행보는 스타로 가고 있고 아직 연기도 못하지만 내 단점을 다음 작품에서는 꼭 고치려고 노력한다. 참, 얼마 전 부산에서 길을 지나다 혼자 관상을 본 적이 있는데 올해가 운이 더 좋다고 하더라.

흥행 지난해 KBS2 '학교'로 시작해 총 다섯 작품을 찍었다. '노브레싱'은 흥행이 되지 않을 걸 직감했고 '관상'은 아쉬움이 남는 영화였다면 '너목들'은 너무 좋았던 작품이다. '피끓는 청춘'은 세심 높아진 인기를 확인해주는 영화랄까. (웃음) 그러다 앞으로 다작은 못 할 것 같다. 데뷔 후부터 겹치기를 많이 해서 피해를 주는 것 같고, 이젠 내실을 다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된다. 전엔 너무 욕심이 많았다.

지기작 분명한 것은 그동안 주로 했던 교복 입는 역할은 앞으로 힘들 것 같다는 것이다. 누아르 장르 같은 남자 영화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요새는 시나리오가 많이 들어와 배역의 선택 폭이 넓어져 행복하다. 그래도 대중성과 작품성의 균형을 맞춰서 작품을 선택하는 게 어려워 고민이다. 또 이전엔 연기는 느끼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혼자 했는데, 이젠 체계적인 수업을 받아서 해보려고 한다.

/박진현기자 [illegible]@metroseoul.co.kr
사진/[illegible] 디자인/[illegible]

하프갤런 사이즈로 무료 업그레이드

배스킨라빈스 패밀리 데이 오늘 해피포인트 회원 혜택 밸런타인·화이트데이 위한 체리초코·체리치즈맛 출시

배스킨라빈스가 3일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 구매 시 하프갤런 사이즈로 업그레이드 혜택을 제공하는 '패밀리 데이'를 벌인다.

이번 프로모션은 민족 명절인 설 연휴로 인해 기존에 진행해온 1월 31데이 날 2월 3일로 날짜만 변경해 동일한 혜택을 제공한다.

5가지 맛을 골라 먹을 수 있는 패밀리 사이즈 아이스크림(1만9500원) 구매 시 하프갤런으로 업그레이드해 6가지 다양한 맛을 즐길 수 있다.

전국 매장에서 현금처럼 적립하고 사용할 수 있는 '해피포인트' 카드 소지 고객이라면 누구나 '패밀리 데이'의 특별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1인당 총 3개까지 구매가 가능하다.

이와 별도로 배스킨라빈스는 다가오는 밸런타인데이와 화이트데이를 맞아 상큼한 체리가 들어간 신제품 '미스터(Mr.)체리초코'와 '미스(Ms.)체리치즈' 두 가지 맛을 동시에 선보였다.

Mr.체리초코는 상큼한 레드 체리가 올라간 김미로운 초콜릿 컵케이크를 아이스크림으로 즐길 수 있는 제품이다. 초콜릿 컵케이크 아이스크림에 달콤함을 더해주는 초콜릿 케이크와 초콜릿 휘핑 리본이 더해져 진한 초콜릿 맛을 느낄 수 있어 밸런타인데이를 맞아 달콤한 선물용으로 제격이다.

Ms.체리치즈는 부드러운 마스카포네 크림치즈 아이스크림에 상큼하게 씹히는 레드 체리와 새콤한 체리 리본을 곁들인 제품으로, 화이트데이에 어울리는 화이트 컬러가 특징이다. 크림치즈와 상큼한 과일을 좋아하는 20~30대 여성층에게 특히 좋은 반응을 얻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2~3월 두 달간 Mr.체리초코 또는 Ms.체리치즈 구매 시 500원만 추가하면 싱글레귤러를 더블주니어로 사이즈 업그레이드해주는 더블업 프로모션이 진행된다. 가격은 싱글레귤러 기준 2800원이다.

/정현정기자 pmw@metroseoul.co.kr

주방 기름때엔 식초·거실 냄새엔 숯

집안에 남은 설음식 흔적 친환경 청소재료 및 요령

명절에는 튀김, 전, 산적 등 기름진 음식을 많이 만들어 주방에 기름때가 많이 끼고 집 안 곳곳에 음식 냄새가 밴다. 가전기업 필립스가 명절 후 식초, 김 빠진 맥주, 양초 등을 활용해 간편하게 주방을 청소하는 요령을 소개했다.

기름때는 식초와 물을 1대1 비율로 섞어 끓인 뒤 뿌리면 깔끔하게 닦아낼 수 있다. 또 먹다 남은 맥주를 키친타월에 적셔 오염 부분에 덮어뒀다가 일정 시간이 지난 뒤 떼어내도 말끔해진다. 맥주 당분이 기름때를 분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김 빠진 맥주를 개수대 안에 부은 후 5분 정도 두면 싱크대 악취가 사라진다.

음식을 만들다 보면 집 안 곳곳에 음식 냄새가 밴다. 이때 아로마 향초를 켜두면 냄새가 천천히 제거된다. 소파나 쿠션에 밴 냄새는 베이킹소다를 뿌린 뒤 청소기로 빨아들이면 깔끔하게 없어진다.

탈취 기능이 있는 숯이나 원두커피 찌꺼기를 집 안 곳곳에 놓아도 좋다. 레몬을 전자레인지에 10초 정도 돌리거나 물과 함께 끓이면 주방에 레몬 향이 퍼져 짧은 시간에 냄새를 없앨 수 있다.

냉장고는 식초나 소주를 이용해 안을 닦아내고 전용 탈취제로 미리 관리하면 여러 음식이 섞여 불쾌한 냄새가 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명절 주방은 여러 사람이 드나들기 때문에 각종 세균과 먼지에 노출된다. 특히 실내 난방 시 곳곳의 기름때가 부패해 세균이 생기기 쉽기 때문에 기름을 쓴 요리를 하고 나서는 바로 물걸레질로 바닥의 기름기를 없애는 것이 좋다.

요즘처럼 미세먼지 농도가 짙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먼지가 쉽게 쌓이므로 더욱 철저하게 위생 관리를 해야 한다.

/박지원기자 [illegible]

유통업계 "명절증후군 잡아라"

주부들 위한 행사 다양

유통업계가 설 명절 기간 지친 주부들을 위로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준비해 눈길을 끈다.

아이파크몰에서는 가사 활동에 지친 주부들의 몸을 풀어주기 위한 이색 행사를 준비했다. 2일부터 5일까지 아이파크백화점 리빙관 '룬두라' 매장에서는 뱃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는 승마 운동기구를, '토쿠요' 매장에서는 뭉친 근육을 푸는 안마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리빙관 '젝라쉬블' 매장에서는 피부 상태를 측정해 개인별 맞춤 상담을 해주고 패션관 '닥터자르트' 매장에서는 손과 얼굴 마사지를 받을 수 있다. 패션관 '비디비치' 매장에서는 예약 고객에 한해 무료 메이크업을 해준다.

롯데마트는 2일부터 오는 9일까지 온라인 쇼핑몰인 '롯데마트몰'에서 '레이디 페스티벌'을 벌인다.

이 행사는 명절증후군에 시달리는 주부들을 위한 행사로, 간편 대용식·다이어트용품·화장품 등 100여 개 할인 상품을 저렴하게 선보인다.

명절 직후에는 상차림 준비에 지친 아내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간편 대용식 상품이 인기를 끄는 것을 고려해 '간편 대용식 모음전'도 준비했다.

/정영일기자

호텔이야 딸기밭이야?

특급호텔들 봄 앞두고 스트로베리 프로모션

냄새노소 불문하고 좋아하는 과일인 딸기는 봄이 오는 것을 알리는 과일 중 하나다. 설 끝 다가오는 봄을 먼저 만끽할 수 있는 명품호텔들의 딸기 프로모션을 소개한다.

먼저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은 오는 14일부터 5월 11일까지 로비라운지에서 딸기를 이용한 디저트를 총망라한 '이어라브 스트로베리' 프로모션을 선보인다. 주중(월~금요일)에는 딸기 애프터눈 티세트가, 주말(토~일요일)에는 딸기로 만든 25여 종의 딸기 디저트가 무제한 뷔페식으로 준비된다.

또 인터컨티넨탈 서울 코엑스는 4월 20일까지 매주 주말(금~일요일) 시간을 이용해 딸기 디저트 뷔페를 진행한다. 호텔은 친환경 고급 품종 딸기를 산지에서 직송해 사용하도록 했으며 딸기 칵테일 한잔도 무료로 제공한다.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에서는 '베리베리 스트로베리' 프로모션을 만날 수 있다. 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매주 주말(토~일요일)에 열리는 프로모션은 오후 1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30분부터 5시30분까지의 2부제로 운영되며 프로모션에서는 30여 개의 딸기 디저트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롯데호텔서울 더 라운지는 다음달 31일까지 '베리 베리 스트로베리' 프로모션을 마련했으며 더 플라자도 4월 30일까지 '리얼 스트로베리 디저트'를 통해 상큼한 봄 기운을 전한다.

그랜드 앰배서더 서울은 15일부터 4월 30일까지 로비라운지&딜리에서 딸기 디저트 뷔페 '스트로베리 홀릭'을 매주 주말(토~일요일) 운영한다. 딸기로 만든 20여 개의 다양한 메뉴와 딸기 에이드 등이 준비되며 호텔은 주중에도 고객들이 딸기의 달콤함을 맛볼 수 있도록 딸기 디저트 단품 메뉴도 선보일 예정이다.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은 지난해보다 업그레이드된 메뉴로 구성된 '말랑상큼 스트로베리' 딸기 디저트 뷔페를 5월 4일까지 진행하며 쉐라톤 서울 디큐브시티는 이달 말일까지 매주 주말(금~일요일) 딸기 디저트의 커피 혹은 차를 즐길 수 있는 '올 어바웃 스트로베리'를 선보인다. /윤채윤기자

조조강직 관절 방치땐 변형

여성 유병률 높은 류머티즘관절염 보험급여 기준 완화·조기치료를

풍요롭고 즐거운 설 연휴였지만 주부들은 명절이 괴롭다. 특히 전을 부치고 상을 차리고 치우는 일을 반복하다 보면 손과 무릎, 허리 등 관절에 무리가 가기 마련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관절에 나타나는 통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칫하면 이런 생각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주부들의 관절 통증이 명절 후까지 지속되면 류머티즘관절염과 같은 관절질환을 의심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남성보다 4배 더 발병

관절염은 여성들에게 유독 높은 유병률을 보인다. 실제로 만 30세 이상 여성의 류머티즘관절염 유병률은 2.5%로 남성(0.7%)보다 약 4배나 높은 수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평소 질환에 대한 올바른 지식과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면역체 이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제때에 치료하지 않으면 관절 변형이 생기고 장애를 갖게 될 수도 있다.

류머티즘관절염의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아침에 관절이 특히 심하게 뻣뻣해지는 '조조 강직'이다. 짧게는 30분에서 길게는 1시간가량 이어지며 증상이 왼쪽과 오른쪽에 대칭적으로 나타난다.

◆조기 진단 및 치료가 관건

류머티즘 관절염 증상이 나타나면 대부분 2년 이내 관절 변형이 생기는데 관절 변형이 진행된 후에는 관절을 되돌리는 치료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조기 진단과 치료를 통해 류머티즘관절염을 관리해야 하며 관절의 구조적 손상을 예방해 신체 기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보통 류머티즘관절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약물치료를 주 치료로 하면서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를 병행해야 한다.

시실 이 질환에 사용되는 약물은 항염증 약물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NSAIDs), 염증이 생긴 관절에 주사를 맞거나 저용량으로 복용하는 스테로이드제제, 관절염의 진행을 완화시키기 위한 항류머티즘제제(DMARD) 등이 있다. 최근에는 기존 치료제에 반응을 나타내지 않거나 내약성이 없는 경우에 사용돼 관절의 염증과 파괴를 억제하는 생물학적 제제 사용이 늘어나는 추세다. '휴미라', '레미케이드', '엔브렐' 등이 대표적인데 기존에는 이런 약물이 조기에 사용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하지만 정부가 올해부터 류머티즘관절염 환자들의 조기 치료를 확대하기 위해 생물학적 제제의 보험급여 기준을 완화시켰다. 급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신체 28개 관절이 붓거나 압통이 있는지를 측정해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고 이것이 일정 기준을 만족하면 보험급여를 적용시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균형적인 식사·스트레스 관리·적당한 운동을 통한 개인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런 조기 이상 증상이 발견되면 곧바로 전문의를 찾아 상담하는 것도 중요하다. /황재용기자 hsoul@metroseoul.co.kr

이대의료원, 종합병원 부문 대상

소비자 선정 브랜드 대상

이화여대 의료원이 지난달 밀레니엄 서울 힐튼호텔에서 열린 '201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 시상식에서 종합병원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2일 밝혔다.

의료원은 최근 발표된 각종 암 및 질환 치료에 대한 의료기관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고 여성암 치료 대표 병원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주최 측은 의료원이 첨단 장비 도입, 미국 국제의료기관평가위원회(JCI) 인증, 제2부속병원 개원을 통해 우리나라 국가 발전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순남 의료원장은 "이번 수상은 의료원의 꾸준한 병원 혁신 활동과 특성화 전략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올해는 JCI 재인증과 제2부속병원의 성공적인 개원을 위한 핵심 경쟁력 확보에 주력해 우리나라를 넘어 세계에서 인정받는 의료기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포브스 코리아가 주최하고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2014 소비자 선정 최고의 브랜드 대상은 온라인 투표와 브랜드 전문가의 심사를 통해 선정된다. /김학철기자 kimc@metroseoul.co.kr

"진라면 먹고 류현진 사인볼 받으세요" 오뚜기는 진라면 광고모델인 류현진 이미지가 삽입된 진라면 스페셜 패키지(10입)를 오는 6일부터 출시한다. 이를 기념으로 류현진 사인볼을 증정하는 내용의 소비자 이벤트를 진행한다. /진라면 제공

JAL 타고 갈 곳 점점 많아진다

일본항공 JAL그룹(이하 JAL)은 다음달 30일부터 2014년 국제선 및 일본 국내선 노선과 편수를 대폭 확대한다고 최근 밝혔다.

먼저 JAL은 도쿄 하네다공항의 국제선 슬롯 확대에 맞춰 하네다발 런던·파리·싱가포르·방콕행 노선을 낮 시간대에 새롭게 운항할 예정이며 심야 시간대를 활용한 하네다~호치민 노선 개설을 통해 고객의 편의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또 JAL은 북미와 아시아 시장 거점을 위해 나리타~뉴욕 노선을 주 14편으로 확대하고 나리타~모스크바 노선은 주 4회 체제로 운영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국내선인 하네다~야마가타 노선의 복수 운항 실현을 위한 증편이 결정됐으며 지방 노선 중 과거 운휴한 노선 6개와 운항이 재개된다.

한편 JAL은 스카이 스위트 기재 수를 빠르게 늘리고 이코노미 클래스에서 최대 10cm를 늘린 좌석인 '스카이와이더'를 장착한 기재의 운항 편을 확대하는 등 서비스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토요타 '르망 24시간' 첫 우승 도전

국내에서도 모터스포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가운데 토요타가 2014년 모터스포츠 상세 활동 및 지원 계획을 발표해 관심을 끌고 있다.

렉서스 토요타 레이싱 팀은 전통의 르망 24시간 레이스를 포함한 FIA 세계내구선수권(WEC), 미국의 나스카(NASCAR), 일본의 슈퍼GT 슈퍼 포뮬러에 출전을 확정했다. 또한 다카르 랠리에 참전하는 토요타 차체를 지원한다.

2012년 하이브리드 레이싱 머신으로 처음 출전한 이래 지난해 전 레이스에 모두 출전, 2승을 올린 WEC 대회에는 올해도 전 레이스에 출전한다. 특히 올해는 차량 규정 변경에 따라 신형 차량 'TS040 하이브리드' 2대로 시리즈 전 레이스에 참전할 예정이다.

르망 24시간 레이스(6월 14~15일, 프랑스 르망)에서는 첫 우승을 노린다.

일본의 히가시후지 연구소에서 개발된 레이싱용 하이브리드 시스템 THS-R(TOYOTA Hybrid System-Racing)는 올해부터 변경된 규정에 따라 새로운 V8 엔진과 모터 제너레이터를 전후에 탑재한 4륜 하이브리드 시스템으로 진화했다. 여기서 얻어진 선진 하이브리드 기술은 양산 하이브리드 모델에 활용될 예정이다.

미국을 대표하는 레이싱인 NASCAR에는 토요타 캠리로 내셔널 시리즈라 불리는 톱 3 카테고리에 출전해 최고 영예인 드라이버즈 타이틀을 노린다.

일본 최고의 레이싱 대회인 슈퍼GT에는 GT500 클래스에 신형 렉서스 RC F를, GT300 클래스에는 토요타 프리우스가 출전한다. /정치혁기자

< 겨울 강자 중소형 SUV 중고차 시세 > (단위:만원)

제조사	차종	2009년식	2010년식	2011년식	2012년식	2013년식
현대	싼타페 CM	1,650	1,850	2,000	2,300	-
	투싼 ix	1,700	1,720	1,800	2,020	2,220
기아	스포티지R	-	1,840	1,910	2,050	2,170
	쏘렌토R	1,900	1,940	2,190	2,430	2,710
쌍용	코란도C	-		1,650	1,890	2,030
르노삼성	뉴 QM5	-	-	2,250	2,900	2,450
폭스바겐	티구안	2,400	2,660	3,120	3,420	3,930
지프	랭글러(JK)	2,650	3,110	3,[illegible]00	3,720	4,220
아우디	Q5(8R)	3,680	4,080	4,680	4,540	5,490
벤츠	GLK-클래스	3,650	3,700	3,830	4,450	5,210

정보제공: 다나와 자동차(auto.danawa.com)

유럽보다 북미스타일

임의택의 차차차

■ 제네시스 G380

제네시스는 현대자동차가 루트 대형 세단 시장에 도전한 최초의 독자 모델이다. 2008년 데뷔해 국내외에서 호응을 얻었고 2009년 북미 올해의 차에 선정되는 영광도 누렸다.

현대차는 제네시스가 BMW 5시리즈나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와 경쟁하기를 바랐지만 현실의 벽은 높았다. 현재 미국에서 팔리는 1세대 제네시스는 3만5200달러부터 시작하고 3.8 모델에 옵션을 전부 더하면 4만4820달러가 된다. 반면 벤츠 E350은 5만1900달러부터 시작하니 1만6000달러 정도의 차이가 난다. 이 정도 차이라면 경쟁 모델로 보기 힘들다.

현대차는 2세대 제네시스 역시 경쟁 모델로 5시리즈와 E클래스를 지목했다. 물론 신형은 아직 북미 시장에 데뷔하지 않았으므로 한국 시장에 해당되는 얘기다.

신형 제네시스의 앞모습은 구형보다 좀 듬직해졌고 전체적으로 날렵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독자적인 색채는 약하다. 라디에이터 그릴은 아우디의 패밀리룩을 떠올리게 하고 헤드램프는 BMW를 연상케 한다. 또한 뒤 측면 자체는 아우디 A7과 상당히 유사하고 테일램프는 렉서스 GS의 것을 닮았다.

◆ BMW흔적 보이는 인테리어

실내의 전반적인 소재와 마무리는 매우 좋아졌다. 그러다 대시보드, 센터콘솔박스 등 곳곳에서 BMW의 흔적이 보인다.

파워트레인은 3.3ℓ 또는 3.8ℓ 배기량의 가솔린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조합된다. 이 가운데 시승차는 3.8 모델이다. 새로 적용된 4륜구동 모델이 궁금했으나 시승차는 후륜구동이 배정됐다.

▲한 줄 평가: 핸들링과 직속성이 눈에 띄게 좋아졌다. 연비 향상을 위해 디젤 또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필요하다 ▲평점: ★★★★(별 다섯 개 만점)

저속서 중속까지 안정 | 반박자 느린 가속 아쉬워

저속부터 중속까지는 구형보다 한층 안정된 움직임을 보인다. 특히 요철이 있는 노면을 지날 때 서스의 안정감이 돋보인다. 구형 제네시스는 속도가 높아짐에 따라 차체 하부가 약간 뜨는 현상이 있었는데, 신형 제네시스는 이 부분이 좋아졌지만 아직 불안감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 서스펜션을 좀 더 세밀하게 조절하는 시스템이 필요한 이유다.

엔진 소음은 구형보다 확실히 줄었고, 경쟁 차종 중에서도 매우 조용한 편이다.

◆ 과급기 적극 활용했더라면…

핸들링과 승차감, 정숙성이 대폭 향상된 반면에 엔진은 기대에 못 미쳤다. 구형 제네시스와 같은 엔진을 개선한 수준인데, 특히 급가속 때의 반응이 약간 늦다. 구형보다 대폭 무거워진 차체가 늦은 가속의 원인이기도 하지만, 슈퍼차저나 터보차저 등의 과급기를 적용하지 않은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아우디와 BMW, 메르세데스 벤츠 등의 독일 브랜드들은 과급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다운사이징에서 큰 효과를 보고 있다.

3.8 2륜구동의 복합연비는 9.0km/ℓ인데, 시가지와 간선도로를 6대4의 비율로 달린 이번 시승에서는 7.0~7.2km/ℓ를 기록했다. 배기량을 감안하면 나쁘지 않지만 독일 디젤 세단에 비하면 열세다.

신형 제네시스의 주 무대는 1세대와 마찬가지로 북미 시장이 될 것이다. 현대차는 유럽 무대에도 선보인다고 하는데, 현재의 라인업으로는 조금 부족하다. 유럽을 공략할 때는 디젤 모델이, 북미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 가세할 경우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다.

제네시스의 트림은 3.3 모던(4660만원)을 시작으로 3.8 파이니스트 에디션(6960만원)까지 다섯 가지로 구성된다. 시승차인 3.8 프레스티지(6130만원)는 풀옵션을 갖추면 6930만원이 된다. 이 가격대는 BMW 5시리즈와 메르세데스 벤츠 E클래스, 아우디 A6 등 인기 수입차가 포진해 있어 경쟁이 만만치 않다. 일상적인 운전을 즐기기에는 3.3 프리미엄(5260만원)으로도 충분한 만족감을 줄 것이다.

/임의택기자 ferrari5@metroseoul.co.kr

쏘울 전기차 6월 개막 美시카고 모터쇼서 첫선

기아차 쏘울이 드디어 전기차(EV)로 선보인다. 데뷔 무대는 6일부터 열리는 미국 시카고 모터쇼다.

최근 오토모티브 뉴스가 보도한 바에 따르면, 기아차는 쏘울 EV를 시카고 모터쇼에 소개하고 상반기부터 본격 판매할 전망이다. 이 차는 27kWh 용량의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하고 최고 출력 109마력의 전기모터를 장착했다. 최대토크는 29.0kg·m에 이른다.

쏘울 EV는 한 번 충전으로 193km(미국 기준)를 달릴 수 있다. 이미 선보인 스파크 EV나 르노삼성 SM3 Z.E.에 비해 긴 거리여서 한국에 선보일 경우 좋은 반응이 예상된다.

한편, 이번 시카고 모터쇼에는 쏘울 EV뿐 아니라 다양한 모델들이 선보일 전망이다. 닛산은 신형 프런티어를 공개할 예정이며 폭스바겐은 오프로드 레이싱 모델을 공개하고 볼보는 신형 S60과 V60을 내놓을 계획이다. /정치혁기자

'체육돌' 이민혁 ★ 찜!

스타 등용문 프로그램 '아육대'서 금 3개·은 1개 MVP 선정

그룹 비투비의 이민혁(사진)이 '아육대' 출신 차세대 스타 자리를 예약했다.

이민혁은 지난달 30~31일 설 특집으로 방송된 MBC '아이돌스타 육상·양궁·풋살·컬링 선수권대회'(이하 아육대)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를 목에 거는 독보적인 활약으로 MVP에 선정됐다.

가장 화제가 된 종목은 높이뛰기로 자신의 키(173cm)보다 10cm 이상 높은 185cm를 뛰어넘는 놀라운 기량을 보였다. 탄탄의 나엘이 보유한 대회 신기록(173cm)을 일찌감치 깼고 183cm를 넘어 빅스타의 성학을 제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기록 경신을 위한 보너스 도약에서는 경기장에 모인 다른 가수의 팬들과 운영위원, 진행자들까지 그를 응원하는 이례적인 상황까지 벌어졌다.

그는 또 풋살 경기에서 빼어난 스피드와 발재간으로 팀의 우승을 견인했고, 남자 60m 달리기에서는 총알 같은 속도로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이어 남녀 혼성 400m 계주에서는 은메달을 차지했다.

지난해 추석 특집 때 높이뛰기 금메달, 100m 은메달, 400m 계주 동메달로 두각을 나타냈던 이민혁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받은 왼쪽 무릎 인대 수술 후유증에도 독보적인 활약을 펼쳐 '체육돌'로 급부상했다.

그동안 '아육대'는 스타 등용문으로 주목받아왔다. 2AM의 조권이 확실한 존재감을 알렸고, 씨스타는 보라의 깜짝활약으로 일약 스타덤에 오른 최대 수혜자다.

데뷔 3년째를 맞는 비투비 역시 이달 새 앨범 발표를 앞두고 이민혁의 활약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다.

작사와 랩 메이킹에서 재능을 보여온 이민혁은 앞서 KBS2 '출발 드림팀' 5관왕과 왕중왕전 우승, 맨즈헬스 표지모델 발탁 등으로 뛰어난 운동 능력도 보여준 바 있다.

/유순호기자 suno@metroseoul.co.kr

185cm 높이뛰기 금메달

크레용팝·김장훈 뭉쳤다

소방관 응원가 '히어로' 뮤직비디오 공개

차세대 글로벌 스타 크레용팝(사진)이 김장훈과 함께 진행한 '대한민국 소방관 프로젝트'의 수제곡 '히어로'의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

열악한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소방관을 응원하기 위해 만든 곡으로 뮤직비디오는 1일 크레용팝 공식 유튜브 채널과 페이스북에 공개됐다. 이번 뮤직비디오에서 크레용팝은 깔끔한 한색 배경 앞에서 소방관들이 착용하는 방화복을 생각나게 하는 헬멧과 의상을 입은 채 귀엽고 생기발랄한 안무를 보여줬다.

김장훈은 소방관 제복을 입고 크레용팝과 함께 '스파이더맨 거미줄 댄스'를 완벽히 소화해 눈길을 끈다.

'히어로'는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 있게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 인명을 구조하는 소방관들을 영웅에 비유해 응원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크레용팝 소속사 관계자는 "'히어로'는 김장훈의 허스키하며 파워풀한 음색과 크레용팝의 귀엽고 명랑한 목소리가 조화를 이루는 응원곡이다.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귀에 쏙 들어오는 멜로디가 특징인 곡"이라며 "누구나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재미있는 안무가 포인트"라고 설명했다.

'히어로' 음원은 5일 발표되며 음원 수익금은 소방관 유가족 및 자녀들에게 장학금과 성금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인순이 최성수 부인 상대 승소

가수 인순이(사진)가 최성수 부인과의 형사 공방에서 승소했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인순이에게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최성수의 부인 박모(52)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한 친분 관계가 있는 피해자의 신뢰를 이용해 23억원에 이르는 돈을 차용금 명목으로 받아 챙기고 대를 변제로 준 그림을 동의 없이 담보로 사용했다"며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앞서 인순이는 지난 2011년 11월 최성수의 권유로 서울 동작구 고급 빌라 '마크힐스'의 신축·분양 과정에 40억원을 투자했지만 계약상 보장한 수익과 원금을 돌려받지 못해 최성수 부부를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5월 최성수 부부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무혐의 처분했으나 인순이는 재수사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권보람기자

주말극 왕좌 지킨 '왕가네 식구들'

배우 오현경과 김희정의 활약을 앞세워 KBS2 주말극 '왕가네 식구들'(사진)이 설 연휴 안방극장을 사로잡았다.

1일 방송된 '왕가네 식구들' 45회 방송분에서는 드디어 미주하게 된 수박(오현경)과 순정(김희정)의 팽팽한 접전이 그려졌다. 덕분에 설 연휴 기간 동안 '왕가네 식구들' 주요 시청층인 40~50대 주부들이 상대적으로 TV를 볼 수 있는 기회가 줄었지만 주말극 왕좌 자리를 지켰다.

2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일 방송된 '왕가네 식구들'은 전국 시청률 39.3%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 방송분(46.7%)보다 7.4%포인트 떨어진 수치지만 안방극장 1위를 수성하기에 충분했다.

한편 이날 방송된 KBS1 '정도전'은 12.6%, MBC '사랑해서 남주나'와 '황금 무지개'는 13.6%, SBS '세 번 결혼하는 여자'는 12.8%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양성운기자 ysw@

100억 넘는 빌딩 부자 연예인 7명

이수만 190억원 1위

'한류 열풍'에 힘입어 100억원 이상 빌딩 부자 대열에 국내 연예인 7명이 포함됐다.

2일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산정 방법에 따라 국내 유명 연예인 36명이 본인 명의로 소유한 42개 빌딩의 기준시가 등을 평가한 결과, 지난해 기준시가 기준 100억원 이상 빌딩을 소유한 연예인은 이수만(사진) SM엔터테인먼트 회장 등 총 7명으로 집계됐다. 이 회장은 압구정동에 190억6000만원 상당의 빌딩을 보유해 1위에 올랐다.

서태지와 아이들 출신 서태지와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나란히 2·3위를 차지했다. 서태지는 강남구 논현동 소재 빌딩(102억1000만원), 종로구 묘동 소재 빌딩(58억3000만원) 등 총 160억4000만원어치의 빌딩을 보유하고 있다. 양현석 대표는 마포구 합정동 소재 빌딩(34억8000만원)과 서교동 소재 빌딩(118억7000만원) 등 총 153억5000만원 규모 빌딩을 갖고 있다.

가수 비가 청담동 소재 빌딩(87억4000만원)과 신사동 소재 빌딩(34억1000만원)을 합쳐 121억5000만원으로 4위에 올랐고, 권상우가 경기도 성남 분당구 이매동에 세운 빌딩(114억4000만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송승헌 소유 잠원동 소재 빌딩은 112억2000만원으로 6위였고, 전지현은 논현동 소재 빌딩(70억7000만원)과 지난해 사들인 용산구 이촌동 소재 빌딩(31억6000만원) 등 총 102억3000만원 규모 빌딩 부자로 7위에 올랐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한류 바람'을 타고 연예계에 고소득자가 늘어나면서 연예계에서 임대 수입 등 안정적 수익을 위한 빌딩 투자가 급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서승희기자

설특집으로 방송돼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김수현 출연의 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왼쪽)와 도둑들

김수현 안방극장 '흥행킹'

출연영화 '은밀하게 위대하게' 설 연휴 특집프로그램 시청률 1위 올라

SBS 수목극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의 결방에도 '김수현 효과'는 여전했다.

1일 시청률 조사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SBS에서 방송된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13.7%의 전국 시청률을 기록했다. 설 연휴 기간인 지난달 30일부터 1일까지 방송된 설 특집 프로그램 중 최고 시청률이다.

김수현·전지현 주연의 '별그대'가 결방된 자리에 김수현·박기웅·이현우 주연의 '은밀하게 위대하게'가 방영돼 김수현 효과를 톡톡히 본 셈이다.

다만 '별그대' 13회 시청률에 비해 11.7%포인트 하락했지만 동시간대 드라마를 제치며 김수현의 높은 인기를 입증했다. 또 명절 연휴 마지막 날 SBS에서 방송된 김수현·전지현 출연의 '도둑들'은 7.7%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연휴 마지막 날 귀성길 대이동이 본격화된 상황에서 이 같은 시청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김수현 효과로 분석된다.

반면 명절 특수를 노린 예능 프로그램들은 줄줄이 쓴맛을 봤다.

정규 편성을 겨냥한 파일럿 프로그램이 대거 방영되며 기대를 모았지만 시청률 재미를 보는 데 실패했다. 명절이 강자로 불리던 예능 프로그램이 대세 김수현 앞에서 무릎을 꿇은 것이다. '은밀하게 위대하게'와 동시간대 방영된 MBC '스타 달은꼴 최강전'은 시청률 8.4%를 기록하는 데 그쳤다.

한편 지난달 31일 KBS2에서 방송된 '7번방의 선물'은 12.4%를 기록하며 이날 방송된 설 특집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시청률을 나타냈다.

/유순호기자 ysw@metroseoul.co.kr

김형준 솔로 데뷔 3돌 콘서트

8일 연세대 대강당서

SS501 출신 가수 겸 배우 김형준이 솔로 데뷔 3주년을 기념해 공연을 개최한다.

2일 소속사 에스플러스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김형준은 오는 8일 연세대 대강당에서 '히 그의 이야기'란 타이틀로 무대에 오른다. 2005년 SS501로 데뷔해 2011년 첫 앨범 '마이 걸'을 발매하며 솔로 활동에 나선 그가 가수로 팬들과 만나는 건 오랜만이다.

그는 지난해 10월부터 뮤추 필리핀리비아 등을 돌며 남미 투어 콘서트를 열었지만 국내에서는 드라마 '장계 발광 그녀 그대들 사랑합니다' '금나와라 뚝딱'에 이어 현재 출연 중인 KBS1 일일극 '사람은 노래를 타고'까지 연기자로의 활약이 두드러졌다.

이날 공연에는 SS501의 멤버였던 박정민이 참여해 김형준과 새로운 듀엣곡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MBC 일일극 '오로라공주'에 출연한 배우 서하준이 콘서트의 오프닝 무대를 장식한다. /유순호기자

엠씨더맥스 10년만에 월간차트 1위

그룹 엠씨더맥스(사진)가 10년 만에 월간 음악차트에서 1위를 거머쥐며 또 하나의 기록을 세웠다.

엠씨더맥스 7집 타이틀곡 '그대가 분다'는 지난 1일 온라인 음악 사이트 멜론이 발표한 1월 월간차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음원 강자로서의 면모를 입증한 것이다. 엠씨더맥스의 월간차트 1위는 2004년 1월 정규 2집 타이틀곡 '사랑의 시'에 이어 10년 만의 쾌거다.

지난달 1일 7집 '언베일링'을 발매하고 앨범 전곡을 차트 줄 세우기 한 엠씨더맥스는 발매 후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식지 않은 인기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1위는 특별한 방송 활동 없이 오로지 음악만으로 평가받은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방송에서는 엠씨더맥스를 볼 수 없지만 콘서트를 통해 이들을 만날 수 있다. 이들은 다음달 15일 KBS 부산홀, 3월 29일 대구 경북대 대강당, 4월 12일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7집 발매 기념 콘서트 '그대가 분다'를 개최한다. /유순호기자

소유·정기고 듀엣 결성

걸그룹 씨스타의 멤버 소유가 힙합보컬 정기고와 프로젝트 듀엣을 결성했다.

2일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소유와 정기고가 프로젝트 듀엣을 결성해 '썸'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썸'은 팝사운드 참여가성으로 노래 부르는 창법으로 주목받은 정기고 특유의 보컬에 소유의 음색이 어우러지는 미디엄 템포의 듀엣곡이다. 정기고가 스타쉽엔터테인먼트 독립음반 레이블 스타쉽엑스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선보이는 싱글이다.

정기고는 2002년 남성 듀오 I F의 '리스펙트 유'를 피처링으로 데뷔한 뒤 소울 다이브, 이루펀트, 에픽하이, 매드클라운, 도끼, 더 콰이엇 등과 작업했다. 2012년 제9회 한국대중음악상 노래 부문 최우수 R&B 소울상을 수상했다.

스타쉽엑스는 '썸'에 앞서 또 다른 프로젝트 듀엣곡인 소유와 매드클라운의 '착해빠졌어'를 선보인 바 있다. '썸'은 오는 7일 음악 사이트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유순호기자

'팝칼럼니스트 1호' 서병후씨 별세

국내 1호 팝칼럼니스트인 서병후(사진)씨가 1일 오후 4시께 암으로 별세했다. 향년 72세.

유명 래퍼 타이거JK의 아버지로도 잘 알려진 고인은 1967년 최초의 팝 음악 잡지 팝스 코리아를 창간하고 여러 주간지에서 기자로 활동해왔다. 1981년부터 MBC '대학가요제' 심사위원을 3년 동안 맡았고 미국 빌보드에 한국 음악을 소개하는 등 국내 가요계에 큰 영향을 미쳤다.

스타 평론가로 활발히 활동하던 고인은 은퇴 후에도 트위터 등에서 젊은 세대와 소통하며 자신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 손자인 서조단의 이름을 따 트위터 아이디를 '조단이 할아버지'로 짓는 등 아들 부부와 손자에 대한 애정도 남달랐다.

타이거JK는 아버지에게 영감을 받아 지난해 '살자'를 발표한 바 있다. 타이거JK는 트위터에 "아버지가 떠났다. 그는 삶은 사랑하고 감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적었다.

빈소는 서울 공릉동 원자력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3일 오전 9시30분이다. /유순호기자

2월 11일 첫방송 / 매주 화 밤 11시 tvN 방송

솔직하고 짜릿한 40대 언니들의 반란

film review
조형우 기자 hong@metroseoul.co.kr

■관능의 법칙

세 여자들의 이야기 성·삶 균형있게 다뤄

비나 능력 없는 케이블 TV 예능국 PD 신혜. 이제 사랑아 지거울 법도 한 신혜에게 얼굴도, 몸도 착한 28세 연하남이 끊임없이 대시한다. 또, 남편에게 당당하게 일주일에 세 번의 성생활을 요구하는 솔직한 주부 미연. 즐거운 섹스를 위해서라면 각종 운동에 수술까지 마다지 않는 미연을 남편은 감당할 수가 없다. 셋 장성한 딸이 있는데도 주책(?) 맞게 연애하는 싱글맘 해영. 그는 또래의 중년 애인과 같이 살고 싶어 딸의 결혼을 추진하려고 한다.

13일 개봉 예정인 영화 '관능의 법칙'은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발칙하면서도 현실감 있게 다룬 작품이다. 영화는 청소년 관람불가 등급답게 초반부터 화끈한 노출이 이어진다. 하지만 그저 야한 영화인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 노련한 연출과 솔직한 대사, 공감 가는 이야기가 펼쳐지며 관객의 눈을 사로잡는다.

'싱글즈' '뜨거운 것이 좋아' 를 연출한 권칠인 감독은 따뜻한 색채와 공간을 사용하고 세 주인공의 우정을 예쁘게 그려내 한 편의 사랑스러운 영화를 완성했다. 그리고 노련한 연출로 40대 여성의 섹스와 삶의 균형을 맞춘다.

세 여배우들의 탄탄한 연기 또한 이 작품을 지탱하는 힘이다. 노출 연기가 부담스러울 만한데도 세 배우는 과감하게 각자 다른 매력을 발산해 스크린에서 눈을 뗄 수 없게 만든다.

특히 이 영화를 그냥 야한 영화가 아니라 재미있는 영화로 만들어 주는 것은 발칙한 대사와 공감 가는 서사의 힘이다. 독특한 대사나 허를 찌르는 표현들이 나오면 웃음을 참기 어렵고 누구나 공감할 만한 연애와 현실 이야기가 펼쳐지면 영화에 빠져들게 된다. 제1회 롯데엔터테인먼트 시나리오 공모대전 대상 수상작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지 않다.

그러나 세 주인공의 이야기가 모두 매력적인 건 아니다. 신혜의 이야기는 다른 작품과 비슷한 연상녀 연하남의 클리셰를 반복해 지루한 느낌이 든다. 또 영화 후반부로 갈수록 연애와 현실의 무게 쪽으로 서사가 옮겨지는 것도 매끄럽지 못하다. 영화 초반 견고하게 맞물리던 세 사람의 이야기가 후반으로 갈수록 서로 완전히 다른 영화처럼 겉돌기도 한다.

그래도 이 영화는 서로 다른 세 여성이 주체적으로 사랑과 삶을 만들어가는 과정을 사랑스럽게 바라보기에 30~40대 여성 관객이 공감을 느낄 만하다. 청소년 관람불가

'수상한 그녀' 하루 65만명이 봤다

설 연휴 최다 관객···일일 박스오피스 1위 등극

영화 '수상한 그녀'(사진)가 설 연휴 박스오피스 정상에 올랐다.

영화진흥위원회 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수상한 그녀'는 1일 65만2513명을 동원하며 일일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다. 이는 '7번방의 선물'(62만9026명), '겨울왕국'(62만8955명), '베를린'(54만2254명)을 뛰어넘은 역대 설 연휴 하루 최다 관객 기록이다.

줄곧 '겨울왕국'에 밀려 박스오피스 2위에 머물렀던 '수상한 그녀'는 개봉 열흘 만인 지난달 31일 처음 정상에 오르며 강한 흥행 뒷심을 보이고 있다. 개봉 5일 만에 100만 관객을 불러모았고, 9일 만에 200만, 11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하며 빠르게 관객을 불러모으고 있다.

투자배급사인 CJ엔터테인먼트는 "'7번방의 선물'이 개봉 4일 만에 100만, 6일 만에 200만, 10일 만에 300만 명을 돌파하며 흥행 속도를 낸 것과 유사한 패턴이다"며 "300만 명 돌파 시점은 휴먼코미디 흥행작인 '과속스캔들' '써니' '댄싱퀸'보다 무려 열흘 이상 앞선 초고속 흥행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유순호기자

'실미도' 제친 '변호인' 한국영화 흥행 8위

송강호 주연의 '변호인'(사진)이 2일 누적 관객 수 1111만4862명을 돌파하며 역대 한국 영화 흥행 8위에 올랐다.

이 관객 수는 1108만1000명의 관객을 동원한 '실미도'를 넘어선 것으로 '괴물' '도둑들' '7번방의 선물' '광해, 왕이 된 남자' '왕의 남자' '태극기 휘날리며' '해운대'의 뒤를 잇는 수치다.

'변호인'은 지난해 12월 19일 개봉한 후 45일 만에 1100만 관객을 달성했다. 이 같은 추세로 '변호인'이 누적 관객 1362만 명의 '아바타'를 꺾고 역대 박스오피스 1위에 오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장혜진기자

'겨울왕국' 신기록 어디까지···

개봉 17일만에 544만 돌파···역대 국내 개봉 애니 최고

영화 '겨울왕국'(사진)이 역대 애니메이션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다.

2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에 따르면 '겨울왕국'은 개봉 17일째인 전날까지 544만 명의 관객을 모아 '쿵푸팬더 2'를 제치고 국내 개봉된 애니메이션 중 최고 흥행 기록을 세웠다. '쿵푸팬더 2'는 2011년 개봉해 506만 명을 동원했다.

개봉 4일 만에 100만, 9일 만에 200만, 11일 만에 300만 관객을 모은 '겨울왕국'은 역대 애니메이션 중 최단기간 500만 명 돌파와 최장기간 전체 박스오피스 및 예매율 1위 기록도 갈아치웠다.

영화의 흥행에 힘입어 OST 앨범 '프로즌'도 함께 인기다. 타이틀곡 '렛 잇 고'는 인기 가요들을 제치고 멜론 실시간 차트와 벅스뮤직 일간차트 1위를 차지했다.

'겨울왕국'은 원치 않는 마법을 지닌 언니와 밝고 용감한 동생의 이야기를 다룬 뮤지컬 애니메이션으로 소만간 '레미제라블'이 보유한 뮤지컬 영화 최고 흥행 기록(591만 명)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인셉션'(593만 명)을 제치고 외화 박스오피스 10위에 오를 전망이다.

/유순호기자 suno@

'타이타닉'급 감동주는 재난 블록버스터 '폼페이'

재난 블록버스터 '폼페이: 최후의 날'(20일 개봉, 사진)이 30초 예고편으로 웅장한 스케일과 드라마틱한 스토리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로마제국에서 가장 화려했던 도시인 폼페이의 전경에서 시작하는 30초 예고편은 화산 폭발로 순식간에 무너져내리는 도시의 모습을 보여준다. 이어 '영원히 사라진 도시, 전설이 된 사랑이 깨어난다'라는 문구와 함께 피할 수 없는 대재난 속에서도 아름답게 펼쳐지는 두 남녀의 애절한 모습이 '타이타닉'에 비금가는 감동을 예고한다.

특히 '폼페이'의 러브스토리는 베수비오 화산 폭발 이후 2000여 년 만에 발굴돼 전 세계의 충격과 슬픔을 안긴 연인 화석에서 모티브를 얻어 더욱 애틋한 감동을 전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유순호기자

경제팀 교체는 빠를수록 좋다

청론탁설

유 병 철 <언론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주 현오석 경제부총리에 대해 '옐로카드'를 꺼냈다. 카드사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현 부총리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실언을 한 바 있다. 가뜩이나 정부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태에서 현 부총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책임을 따진다"고 말해 국민의 마음에 심한 상처를 줬다. 어느 여론조사에서는 국민 가운데 1%가 "분노를 느낀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현 부총리를 겨냥해 박 대통령은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고 개인의 입장을 강변한다면 국민의 마음에 더 상처를 주는 것이란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말했다. 그렇지 않아도 현 부총리를 둘러싸고 그동안 많은 논란이 있었다.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서도 교체를 건의할 정도였다. 지난해 7월 교체설이 있을 때 박 대통령은 "일할 기회를 줘야 한다"면서 옹호한 바 있다.

지난해 우리 경제는 여러 면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다. 일부 업종이나 몇몇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심각한 불경기에 시달려왔다. 특히 실업대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가계부채가 1000조원을 넘어섰고 전세대란 속에 하우스푸어가 양산되고 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8%로 저성장의 그늘을 조금도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지난 4분기에는 1%를 밑도는 0.9%에 그쳐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올해에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에서는 야당이 경제 관련 법안 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아 경제 회생에 걸림돌이 됐다고 항변할 수는 있다. 그러나 현 경제팀의 핵심 3인방이라 할 수 있는 조원동 경제수석은 지난해 8월 세제개편안을 놓고 증세 논란이 일자 '거위털 발언'으로 국민들로부터 분노를 산 적이 있다. 납세자를 거위에 비교하면서 털을 뽑아도 무방하다는 증세론을 폈던 것이다. 또한 이번 카드 사태에 관리·감독을 책임지고 있는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동양 사태'와 관련해서도 자유롭지 못한 입장이다.

경제팀 핵심 멤버들을 향한 국민의 신뢰는 내려갈 만큼 내려갔다. 따라서 경제팀을 조속히 교체해야 마땅하다. 현실적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추진 등 어려운 점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지금의 경제팀으로는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사람은 드물다. 하루빨리 새로운 진용을 짜 국정을 쇄신하고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

포토프리즘 고향의 정 듬뿍 안고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일 오후 서울역에서 고향에 다녀온 귀경객들이 열차에서 내리고 있다. 긴 연휴를 뒤로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는 시민들의 다양한 얼굴이 이채롭다.

/송은석기자 sone@metroseoul.co.kr

박태준이 그리운 이유

뉴스룸에서

이 충 건 <편집위원>

1990년대만 해도 신문과 방송들은 설이나 추석 등 명절 때 포항제철의 합동차례 모습을 빠뜨리지 않고 보도했다. 이런 연유로 많은 사람들은 제철소라는 곳이 24시간 조업 체제라 명절에도 직원들은 고향에 못 가고 근무할 수밖에 없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전방을 지키는 군장병에 비견될 만큼 애잔한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봤고 노고에 박수를 보냈다.

제철소라는 곳은 그런 곳이다. 단순한 산업 현장이 아니다. 특히 우리나라 산업사에 제철소가 갖는 의미는 남다르다.

포항제철이 대일 청구권 자금으로 세워졌다는 역사적 사실과 건설 과정에 작고한 박태준 포항제철 명예회장의 '제철보국'과 '우향우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건설에 실패하면 모두 영일만 바다에 뛰어들자"며 산업의 쌀인 철강재를 만드는 소재산업의 근간이자 기간산업의 자존심이라는 혼과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런 제철소들이 요즘 이상하다. 사고 소식이 이어지는 등 어수선하다. 현대제철은 안방할 정도로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9일 당진제철소에서 작업하던 협력업체 직원이 냉각수 웅덩이에 빠져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23일 결국 숨졌다. 당진 제철소는 2012년 9월 이후 9건의 안전사고로 모두 13명이 목숨을 잃었다.

고용노동부가 작년 5월 특별점검 때 모두 1123건의 산업안전법 위반사항이 적발될 정도로 안전관리 불감증이 발견됐으나 시정되지 않고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제철소가 사고뭉치 공장으로 전락한 꼴이다.

포스코의 경우도 과거와는 다른 행보를 보인다. 지난 1월 인도네시아에 세운 제철소가 문을 열자마자 조업을 중단했다 재가동하는 등 포스코다운 치밀함과 일사불란함을 잃은 듯한 모습이다.

지난해 12월에는 파이넥스 공장건설현장에서 협력업체 직원 2명이 사망한 적이 있고 얼마 전에는 계열 포스코건설 여직원 대전 횡령사고까지 겹쳤다.

포스코는 지난해 영업이익과 매출이 감소한 가운데 권오준 신임회장의 취임을 앞두고 있다. 현대제철은 잦은 사고로 고용노동부로부터 경영의 진정성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의 두 기둥인 제철기업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분발과 역사성 회복을 기원한다.

낙타

인문학 산책

김 민 웅 <성공회대 교수>

"별과 달과 해와/모래만 보고 살다가/돌아올 때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 하나/등에 업고 오겠노라고/무슨 재미로 세상을 살았는지도 모르는/가장 가엾은 사람 하나 골라/길동무 되어서." 신경림의 시 '낙타'의 마무리 대목이다.

그는 세상을 하직하는 날 '낙타를 타고 떠나겠다'는 15세기 탐험가 같은 유언을 한다. 물론 어디까지나 노시인의 은유적 발언이지, 죽기 전 중앙아시아 어디쯤에서 괜찮은 낙타 한 마리 미리 알아보겠다는 뜻은 아니다. 살아생전 힘지게 달리던 백을 어느 세월 자기도 모르게 잃고 흰 상여에 떠 메어가는 것도 아니고, 남아있는 제 힘으로 이 범상치 않은 동物의 곡선을 가진 이국의 동물 위에 올라타겠단다.

어지간하면 삶의 마지막 여정이 그리 수척하지 않고 홀로가 아니다. 세상에 다시 태어나면 낙타가 되어 가장 어리석은 누군가의 길동무 되어 가겠노라 밝힌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낙타일까?

대상(隊商) 캐러밴은 그림자 하나로도 모래 벌판의 완벽한 풍경화를 만들어주는, 목이 길지만 슬프지 않고 눈빛 너그러운 이 짐승이 아니고는 상상할 수 없다.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 니체는 인간이 낙타에서 사자, 그리고 어린아이로 가는 초극(超克)의 과정을 설파한다. 자기 짐도 아닌 것을 강제로 지고 가는 낙타는 노예의 단계이고, 이를 극복해야 자유의 주인인 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자는 자유를 위한 싸움의 긴장에서 영원히 풀려날 수 없다. 정신의 평화는 아직 확득되지 못한 것이다. 어린아이는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된 존재 자체를 상징한다.

흥미롭게도 '짜라투스트라'는 "낙타를 모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그가 창시자가 된 조로아스터교는 어두운 세상에 불을 밝히라는 하늘의 뜻을 선포한 종교다. 그 이름대로 고집 센 야생 낙타를 길들여 사막에서 인간의 길동무가 되어가도록 하는 그 오랜 시간은 낙타의 인내와 수고, 그리고 희생과 수없이 마주한 순간이었을 것이다. 니체가 본 것과는 다르게 노예가 아니라 때로 절망스럽고 처절한 시간을 인간과 함께 해준 존재로서 말이다.

바람이 몹시 불던 날 타클라마칸을 너머 고비사막 언저리를 잠시나마 빛게 해준 낙타가 떠오른다. 말의 재라고 하는데 난데없이 낙타를 떠올린 까닭은 달리 있지 않다. 혹여 인생의 사막을 만나도 마음속에 낙타 하나 함께하면 갈 길이 막막하다고 쉽게 지치거나 외롭지 않을 것이다.

도로명주소 한 달이 남긴 것

기자수첩

박 선 옥 <경제산업부 기자>

100년 넘게 사용한 지번 방식의 행정 주소가 올 들어 도로명 방식으로 전면 개편됐다.

하지만 2006년 10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공포된 이래 2년간의 병행 사용을 거쳐 본격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지역 프리미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불만도 일부 제기되지만 이보다는 도로명주소만 듣고 그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데서 가장 큰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기존 지번주소의 '동(洞)'과 도로명주소의 '대로·로·길' 등이 연관이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부동산 계약서나 등기부등본에는 기존 읍·면·동 체계의 행정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면서 법적 주소만 도로명으로 바꾼 점도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일선 현장의 중개업소나 견본주택에서는 기존 지번 중심의 주소를 그대로 사용하는 실정이다.

그간 정부는 도로명주소 사업에 400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다. 그러나 종합적이고 세밀한 제도 개선 없이 국민들의 사용만 강요하다 보니 돈은 돈대로 쓰면서 효과는 전혀 거두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7년 '평(坪)'에서 ㎡로 단순히 표기법만 바꿔 밀어붙였다가 여전히 뿌리 내리지 못한 '법정계량단위' 사례를 떠올려야 한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련 제도들을 개선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홍명보호 또 골가뭄…믿을 건 유럽파?

멕시코 이어 미국에 연속 무득점 패배 · 선수 전원소집되는 그리스전 관심

홍명보호가 졸전 끝에 미국에 무릎을 꿇었다. 결국 국내파와 해외파가 전원 소집되는 그리스전에 축구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홍명보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카슨의 스텁헙 센터에서 열린 미국과의 평가전에서 크리스 원더로프스키에게 2골을 허용하며 0-2로 패했다.

이날 홍 감독은 베스트 멤버를 내세우겠다는 뜻을 밝히고 최전방에 장신 공격수 김신욱(울산)을 세운 가운데 2선에 김민우(사간도스)와 이근호(상주), 고요한(서울)을 배치했다.

중원은 박종우(부산)와 이호(상주)가 맡았고 포백은 김진수(니가타)·김기희(전북)·김주영(서울)·이용(울산)이 투입됐다. 지난 두 경기에서 김승규(울산)가 골키퍼 장갑을 꼈지만 이날은 정성룡(수원)이 선발로 나섰다.

그러나 국내파 위주로 구성된 축구대표팀만으로 연패를 끊기는 역부족이었다. 코스타리카에 1-0

2일 미국 캘리포니아 카슨의 스텁헙 센터에서 열린 미국 대표팀과의 평가전에서 한국 대표팀이 선제골을 허용한 뒤 아쉬워하고 있다. /연합뉴스

으로 이긴 대표팀은 이후 멕시코(0-4 패)와 미국에 연달아 패하고 말았다.

홍 감독은 경기를 마친 뒤 "선수들은 지쳐있는 상황에서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했다"며 "결과는 졌지만 선수들은 최선을 다했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결과에 대한 부분은 감독인 저를 비난하면 될 것"이라며 "선수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최선을 다했고 (결과에 책임을 지는) 그 몫은 제 몫"이라고 강조했다.

국내파 선수들만으로 한계가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다음달 6일 그리스전에는 월드컵에 나갈 정예 멤버를 투입할 생각이다. 그때는 유럽파들도 전원 소집한다"며 "그리스전은 월드컵을 앞두고 할 수 있는 마지막 평가전이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 실력이 가장 뛰어난 선수를 뽑겠다"고 밝혔다.

브라질과 미국에서 전지훈련을 마친 대표팀은 3일 오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한다.

한편 홍 감독은 선수단과 함께 귀국하지 않고 미국에서 며칠 더 머무른 뒤 유럽파 태극전사들의 기량을 점검하기 위해 유럽행 출장길에 나선다. 홍 감독은 최근 담을 옮긴 구자철과 박주호(이상 마인츠), 지동원(아우크스부르크), 박주영(왓포드)을 비롯해 맹활약 중인 기성용(선덜랜드) 등의 경기를 관전할 예정이다. 더불어 대표팀 복귀 불가 선언을 한 박지성(에인트호번)도 만나 '복귀 논란'의 마침표를 찍을 것으로 보인다.

/장성훈기자 ysw@metroseoul.co.kr

조제 알도 6차 방어 성공

종합격투기대회 UFC 169에서 조제 알도(27·브라질·사진 왼쪽)가 리카르도 라미스(31·미국)를 누르고 승리를 거뒀다.

2일 오전 펼쳐진 UFC 169에서 페더급 타이틀을 놓고 알도가 라미스를 상대로 타격과 그라운드 기술 등 모든 면에서 안정적인 공격을 펼쳐 심판 전원일치 판정승을 거뒀다. 이날 알도는 1~4라운드 경기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라미스는 5라운드 저돌적인 공격력으로 조제 알도를 몰아붙였지만 끝내 무릎을 꿇었다.

한편 알도는 지난해 8월 UFC 163에서 한국의 정찬성을 4라운드에 TKO로 제압한 바 있다.

/장성훈기자

프로농구 전적 2일

동부	21	15	11	13	65
KT	17	20	18	16	77
KCC	14	15	16	17	62
오리온스	21	18	19	17	75
인삼공사	16	15	27	25	83
전자랜드	12	18	25	21	77
삼성썬더스	10	17	22	13	62
국민은행	21	12	17	24	74

프로배구 전적 2일

현대캐피탈	3	0	대한항공
기업은행	3	0	흥국생명

기성용(25·가운데)이 1일 잉글랜드 뉴캐슬 세인트제임스파크에서 열린 뉴캐슬과의 타인 위어 더비에서 승리한 뒤 동료들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AFP 연합뉴스

박주호 데뷔골·구자철 쐐기골·기성용 풀타임…

해외파 날았다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의 마인츠가 코리안 듀오 박주호(27)와 구자철(25)의 골에 힘입어 2-0 승리를 거뒀다.

박주호는 1일 독일 마인츠의 코파세 아레나에서 열린 프라이부르크와의 2013~2014 분데스리가 19라운드 홈경기에서 전반 24분 선제골이자 독일 무대 데뷔골을 터뜨렸다. 박주호는 페널티 지역 정면에서 크리스토프 모리츠가 가운데 빈 공간으로 내준 패스를 왼발 감슛으로 연결했다. 공은 상대 수비를 맞고 굴절되며 골키퍼 키를 넘어 골로 이어졌다.

후반에는 13분 교체 투입된 구자철의 쐐기골이 터져나왔다. 구자철은 후반 41분 프리킥 상황에서 요하네스 가이스의 패스를 받아 골대 정면에서 왼발 슛을 날려 왼쪽 골망을 흔들었다.

다른 유럽파 태극전사들은 이날 공격포인트를 기록하진 못했지만 자신의 소속팀에서 핵심 역할을 해내 부진에 빠진 축구대표팀에 희망을 걸게 했다.

손흥민(22·레버쿠젠)은 슈투트가르트와의 홈경기에 선발로 출전해 75분을 소화했다. 레버쿠젠은 슈투트가르트를 2-1로 꺾었다.

지동원(23·아우크스부르크)은 베르더 브레멘전에서 3-1로 앞선 후반 24분 최전방 공격수로 교체돼 상대의 옐로카드 반칙을 유도하는 등 가벼운 몸놀림을 보였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의 기성용(25·선덜랜드)은 뉴캐슬과의 프리미어리그 24라운드에서 풀타임 활약을 하며 팀의 무패 행진을 이끌었다.

/황순호기자 tpa70@

소치 조직위가 뽑은 우승후보 김연아·이상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피겨 여왕' 김연아(24)와 '빙속 여제' 이상화(25·서울시청) 등이 눈여겨봐야 할 우승 후보로 선정됐다.

2일 대회 조직위원회 정보 시스템인 '인포(Info) 2014'에는 주요 출전 선수 시리즈를 통해 눈여겨봐야 할 우승 후보에 김연아가 여자 피겨스케이팅 선수 중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렸다. 김연아는 이번 대회에서 선수로서 마지막 연기를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스피드스케이팅 여자 500m 세계기록을 잇달아 갈아치우며 '폭속 질주'를 펼친 이상화는 여자 단거리 선수 중 가장 먼저 이름을 올려 눈길을 끌었다.

또 남자 500m 2연패를 노리는 모태범은 미첼 뮬더(네덜란드)와 함께 이 종목의 강자로 꼽혔다.

반면 한국의 전통적인 메달밭인 쇼트트랙에서는 올 시즌 월드컵 랭킹에서 500m 1위, 1000m 2위, 1500m 3위에 오른 쇼트트랙 황제 안현수(러시아명 빅토르 안)가 이름을 올렸다. 또 차세대 여왕 심석희(17·세화여고)는 2013~2014시즌에 언터처블이었다는 평가와 함께 이름을 올렸다.

/장성훈기자

'오승환 타격·이대호 밀어치기' 日 언론 집중조명

마무리투수 오승환(32·한신 타이거스·사진 왼쪽)과 거포 이대호(32·소프트뱅크 호크스·오른쪽)가 스프링캠프 첫날 타격으로 일본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산케이스포츠는 2일 고교 졸업 후 9년 만에 방망이를 잡은 오승환의 타격 훈련 장면에 대해 보도했다. 한신이 속한 센트럴리그에는 지명타자제도가 없기 때문에 오승환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타격 연습을 시작했다.

오승환은 "공이 빨라 잘 보이지 않았다"는 소감과 달리 30분간 기계에서 나오는 공을 때려 직선타성으로 날리는 등 날카로운 타격감을 보였다. 오승환은 주수 수비 훈련에서도 기본기에 대해 합격점을 받았다.

또 다른 스포츠 매체인 스포츠호치는 이대호의 밀어치기를 다뤘다.

이대호는 스프링캠프 첫날 타격 훈련에서 58차례 스윙해 51차례나 중견수 우측으로 타구를 날렸다. 홈런은 치지 못했으나 밀어치기로 타격감을 끌어올렸다.

후쿠오카 출신인 사다하루 소프트뱅크 구단 회장은 "다른 팀에서 이적한 선수 중 간혹 연습 타격 때 힘을 주는 일도 있지만 이대호는 스스로 페이스를 조절할 줄 안다"며 이대호에게 믿음을 보였다.

/정혜인기자 hjung0404@

닮은 욕망

임경선의 모놀로그

생일을 맞이해서 스스로에게 새옷이라도 사줄까 싶어 설 연휴 동안 인터넷 쇼핑으로 10시간 정도를 소모했다. 소모라고 하는 이유는 클릭과 눈이아프며 정작 아무런 물건도 못 샀기 때문이다. 이렇지래 요새 진이 빠져있어 그런가 싶었지만 실제 사고 싶은 것이 없었다.

마음에 좀 든다 싶으면 대개 'st'라는 알파벳 글자가 붙어있었다. 이것은 시중에 있는 명품 브랜드 제품 스타일을 카피했음을 의미하는 '스타일(style)'의 약자다. 소소한 디테일을 제외하곤 감쪽같이 카피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지만 하물며 그럼 제품들에 혹하는 스스로를 발견하는 일도 유쾌하진 않았다. 진품을 입는 이들이 내 것이 짝퉁임을 알아차릴까 노심초사하는 마음보다 최소한의 비용으로 명품 세계에 덕질어[illegible] 하는 무리수가 부자연스러웠다. 그러면서도 한번 이런 것들을 본 이상 백화점 가서 제 돈 주고 옷 사 입기도 망설여진다. 브랜드 마케팅 비용으로 값이 비싸게 책정돼 있기도 하지만 웬만큼 예쁜 옷은 온라인 세계에 이미 죄다 'st' 딱지가 붙어 널려있기 때문이다.

돈을 차곡차곡 모아 진품을 끝내 사내는 결기도 없다. 남편이 몇 번의 생일이나 기념일에 '명품 가방을 사줄까'라고 어디서 주워들은 뜻한 멘트를 로맨하게 날린 적이 있었지만 거절했다. 소신보다도 비싼 가방을 들고 다니기가 거추장스럽고 내가 가진 옷들과 어울리지도 않았고 경제적으로도 나에게 명품 아니라 사치품이었기 때문이다. 타협안으로 명품 이웃렛이라는 수도 있지만 다 좋고 남은 예전 비싸고 안 예쁜 것들에 열을 올리는 것도 깨달았다. 그런 패스트 패션은? 몇 번 입고 빨면 옷이 망가지고 디자인은 너무 유행을 타기에 끝없는 영혼 없는 소비만 되풀이하게 만든다. 패션 시장은 그렇게 양갈래로 가열화 거대화되어 각자의 공식대로 사람들의 욕망을 조장하고 인터넷 쇼핑몰 운영자라는 영세 자영업자들은 그 욕망을 이용한다. 그러나 모든 여자들이 반드시 닮은 방식으로 욕망하진 않는다. /칼럼니스트

날씨

2/3 月 일출시각 07:34 일몰시각 17:58

자료제공 K-weather 케이웨더(주) www.632.co.kr

서울, 철원, 대전, 전주, 광주, 제주, 강릉, 울릉도, 대구, 포항, 울산, 부산

안쪽통 두통 다발성 관절통 기력저하 혹은 집중력 장애 운동 후의 심한 권태감 등이 지속되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의심해야 합니다.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아보세요.

지수
감기가능지수
천식·폐질환가능지수
뇌졸중가능지수
피부질환가능지수

자료제공 : 경희대학교 서울병원 (www.pmk.ac.kr)

출근길 두뇌 스트레칭 재미가 듬뿍! 아이큐가 쑥쑥!

SUDOKU

1. 모든 세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2. 모든 가로줄에는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들어갑니다.
3. 가로, 세로 3×3으로 이뤄진 작은 사각형 안에도 1~9의 숫자가 겹치지 않아야 합니다.

3		1	9			7		
						5	6	
	8		4	3				
4	3	5			8			
		9			2		3	
	1		8	5			4	
2		8		6	1			
	5			4			7	

					1			
			7	6	8		9	3
			9			8		
	4	6						5
	9				4		6	
5	8			3				2
		4						7
	2			1				8
	5		8		3	4	2	

스도쿠 정답

문제 제공 - 보누스
슈퍼스도쿠 마스터
(저자 [illegible] 지음)

김상회의 사주속으로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www.[illegible].com

남매 둔 남자와의 재혼 어떨지 혼자 속썩지 말고 하반기 결정

답변사유 여자 67년 3월 12일 (음력) 오후 12시30분

Q 혼자 된 지 10년인데 사별한 사람을 소개받았습니다. 남자에게 남매가 있는데 장모가 길렀다고 합니다. 재혼해도 애들 때문에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걱정입니다.

A 남자분 태어난 날에 형살이 기어와 자궁에 우환을 예고합니다. 과거의 일이 된 것 같겠으나 과감살로 성격이 강하고 주체성은 넘어있기에 늘 자식이 우선순위가 될 것입니다. 자식궁에 천을귀인을 두었으니 자손에게 연연하는 것입니다. 재혼을 결심한다면 각자 주변의 가족 관계에 문제가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운에서 전처 자식을 귀하기 포용할 수 있는 강한 운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사실도 명심해야 합니다. 좀 더 세심하게 알아본다면 남자분은 재혼 의사가 그다지 강하지 않습니다. 혼자 애태우지 말고 2014년 하반기까지 교제하다 7월 이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결혼식 후회 안할까요 서로 합을 이루니 갈등 안생겨

예남2 남자 72년 음력 12월 20일 오전 9~11시
여자 89년 음력 4월 13일 오후 3~5시

Q 지인 소개로 여자를 만나 사귄 지 4년 정도 됐습니다. 저는 결혼에 한 번 실패했고 지금 사귀는 여자와 결혼하지 생각하고 있는데 궁합이 궁금합니다. 또 실패할까 두려워 생각이 많습니다.

A 극과 극을 오가니 자존심의 기운이 강하고 독선적일 수 있는데 서쪽의 별과 같이 고독하고 외롭게 빛나고 있는 아름다운 형상입니다. 방랑이 잦지 않고 나가는 적극적인 성격에 완벽주의자 스타일로 단점도 되지만 장점도 되니 단점은 줄이고 장점을 키우는 생활을 하도록 하세요. 부모궁에 흉살로 덕이 없어 초년에 고생했는데 관록 기둥으로 진출했다고 봅니다. 여자분은 사상이 건전하고 외관이 단정하여 두뇌도 총명합니다. 천을귀인 귀인의 도움이 있는 길함이 상호 갖고 있어 상부상조할 것이며 사주의 천간과 지지에서 서로 생(生)해주거나 합을 이루니 크게 갈등을 빚지 않습니다. 음력 8월에 누구에게도 다투지 마십시오.

자신의 사주를 알고 싶은 독자들은 메트로 홈페이지(www.metroseoul.co.kr) 연재 '사주 속으로'를 클릭해 생년월일과 태어난 시, 그리고 상담을 원하는 내용을 적어 올려 주십시오. 추첨을 통해 사주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신점[神占] 운세

월 1일 ~ 월 4일 김혁수 인생상담 [illegible]

쥐 48년생 의들어 될 일 지초하지 마라. 60년생 원하던 대로 일이 술술 풀린다. 72년생 못마땅하더라도 응료는 흔들지 마라. 84년생 어려운 고비 무난히 넘긴다.

소 49년생 진한에 행복 바이러스 퍼진다. 61년생 배우자의 무언의 언력에 힘든 하루 될 듯. 73년생 자영업자는 큰 이익 생긴다. 85년생 애정 표현 남발하면 손해.

호랑이 50년생 시끄 가려서 만나지 마라. 62년생 구직자는 원하던 자리 얻는다. 74년생 직장인은 결정적인 한방 터드린다. 86년생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선택은 없다.

토끼 51년생 약점 숨기면 손해 본다. 63년생 혼자 눈비 맞는 데 너무 억국. 75년생 잘나간다고 허세 부리다간 큰코다친다. 87년생 자금심 상감 검사 생겨 사기 충천.

용 52년생 위험한 요소 제거하는 데 신경 써라. 64년생 곤란한 일은 희망의 싹 틔운다. 76년생 달콤한 말에 솔깃하지 마라. 88년생 생각이 건전하면 결과도 좋다.

뱀 53년생 지인 갈등은 해소된다. 65년생 그룹된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77년생 직장인은 이미지 끌어올릴 성과 얻게 된다. 89년생 남의 말에 귀 기울여라.

말 42년생 부질없는 일에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54년생 예상한 곳에서 이익 생긴다. 66년생 운기 좋으니 적극 움직여라. 78년생 부모에게 연락하면 얻는 게 많다.

양 43년생 말지기 무당이 시랑 잡는다. 55년생 밤이 지나면 새해이 오니 참아라. 67년생 자녀가 기쁜 좋은 소식을 전한다. 79년생 감공 이미지는 득보다 실 많다.

원숭이 44년생 험상도 지나지면 복. 56년생 생각이 많으면 찾아온 기회 놓친다. 68년생 현실성 없는 일은 손해 보더라도 포기할 것. 80년생 귀인을 만나 야망 키운다.

닭 45년생 기다리던 소식을 듣는다. 57년생 선택할 것이 많을수록 한 가지에 집중할 것. 69년생 재수가 완성해 거림이 없다. 81년생 술자리에서 실수 않도록 조심.

개 46년생 되돌릴 때 문단속 신경 써라. 58년생 문서 일 성사되기 좋은 날. 70년생 행운의 숫자는 3과 7이니 참조할 것. 82년생 지인의 도움으로 어려움 해결된다.

돼지 47년생 가는 날이 장날인 셈이다. 59년생 자영업자는 돈이 들고남이 왕성한 날이다. 71년생 때론 지는 게 승승 해도 있다. 83년생 진흙 속 진주의 화려한 외출